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7763.95	↑ 코스닥	996.93
	(+33.13)		(+45.30)
↑ 금리 (미국 3년)	3.904	↑ 환율 (원/달러)	1531.30
	(+0.023)		(+7.10)

최태원 SK그룹 회장
시팩토리 후보지로
일본 지목
02



‘N% 성과급’ 주총 부결시 직원들 빈손

삼성, 내년 주총서 결정할 듯
주주의견 반영 길 열려있어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삼성전자에 가치분 소 착수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이른바 N% 성과급을 두고 주주의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성과급 자체는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하기로 하면서, 개정 상법상 자사주 처분에 필요한 주총 승인이 매년 관문으로 남아 주주 의견이 반영될 절차가 살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총이 부결하면 직원들은 자사주를 할 수도 받지 못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가 보유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은 성과급 합의를 아닌 지급 수단인 자사주 처분으로, 현금 지급이라면 주총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노사간 협약이 전액 자사주 지급을 명시해 주총승인이 막히면 이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급 주식수와 가격도 주총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 협약의 승인 시점은 내년 정기주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나 오지만,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소집해 연내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도입한 ‘영업이익



오늘 11시 킥오프... 대표팀, 훈련 매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0일(현지 시간) 체코를 상대로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앞두고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에 위치한 베이스캠프 훈련장 치바스 바에 베르데에서 훈련하고 있다. /뉴스

10%’ 방식을 따라, 지난달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논란은 영업이익을 배당에 앞서 임직원에게 배분해 주주 몫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총 승인 절차가 남아 주주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주주의 침해 단정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합의 이행 여부는 주주 표결로 결정되며 매년 승인이라는 불확실성은 직원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N% 성과급에

주총 결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합법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사이 주주 행동은 본격화하고 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는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치분 소송에 착수하며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자사주 성과급의 주총 승인 의무는 이미 개정 상법에 규정돼 있다.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721명이 참여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쳤지만, 발행주식의 0.1%에 못 미쳐 임시주

총 소집 청구 요건(지분 3%, 6개월 이상 보유 시 1.5%)에는 크게 모자란다. 정기주총 표결에는 지분 요건이 없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47%에 달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 비중도 커, 부결 여부는 사실상 기관·외국인 표심에 달려 있다.

한국상사법학회회장을 지낸 권재열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안만 보고 주주의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차피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주주가 반대한다면 주총에서 부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은 노사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샘 올트먼 방향... 삼성·카카오 회동

오픈AI CEO, 오는 14일 입국
네이버 경영진 회동 가능성도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사진)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잇달아 찾는다. 삼성전자는 AI 전환(AI)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카카오에서는 AI 서비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입국한 뒤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를 방문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난다.

양측은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만남에서는 기존 협



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AI와 손잡고 ‘챗GPT 포 카카오’를 공개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과 AI 에이전트 서비스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트먼 CEO는 같은 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리는 ‘DX 인사이드 토크 #2’에도 참석한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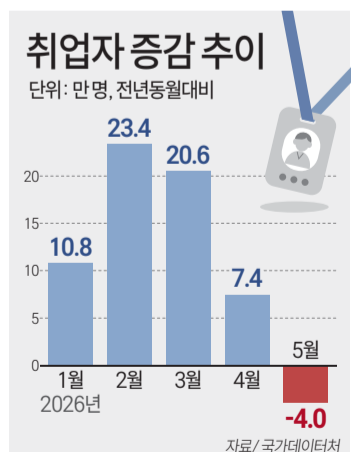


중동발 고용 충격 현실화... 5월 취업자수 감소

데이터처, 전년비 4만명 줄어
계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
제조·농림어업 등 감소폭 커

국내 취업자 수가 2024년 12·3사태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동발 충격으로 원자재·원재료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만 명 감소했다(-0.1%). 월간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한 것은 비상계업 사태 때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14만명),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도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제조업이, 중동 사태의 여파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크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25개월째 취업자 감소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7만1000명), 30대(6만2000명), 50대

(2만5000명)에서는 증가했으나 20대(-25만1000명)와 40대(-4만3000명)에서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급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세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수급 차질이 나타나고 있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 /사진 뉴스사
▲ 이 대통령 “음주강요 등 직장 내 갑질 꿈도 못 꾸게...내각에 조치 지시”

▲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12일부터 시행
▲ 추, 국가소송 패소 노동자에 소송비 청구 두고 “안타깝지만...법이 그렇다”

▲ 과격해지는 개표소 시위...경찰 “폭행뎀 검거”
▲ 검찰, ‘최태원 동거인 申 간첩’ 주장 유튜브에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한국 외 반도체 공장 신설 검토, 日 매력적인 후보지”

(SK그룹 회장)

최 회장, 니혼게이지신문 인터뷰
차기 반도체 공장 관련 계획 밝혀
“국내외 모든 지역 가능성 열어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 구축과 관련해 국내외 모든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둔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국 이외 지역으로 일본도 좋은 후보지라고 지목했다.

최태원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조합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AI 팩토리 후보지로 일본을 언급했다.

현재 SK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AI의 핵심 단위인 ‘토큰’ 생산 공장)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9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서 한일 경제 연대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본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현재 많은 산업이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한

층 더 늘릴 경우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생산국이고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상태가 모두 갖춰진 만큼 매력적인 후보지를 언급했다. 다만

“일본에서 언제 어디에 건설할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일본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45년까지 반도체 공장 4기를 완공할 목표였던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 “완성을 수년 이상 앞당 기겠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첫 번째 팹(Y1)을 건설 중이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당초 2050년까지 완료하려던 4개 팹 투자가 2030년대에 조기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용인 이후’의 차기 입지로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공장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등도 후보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공장 건설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오뚜기, 해외진출·세대교체 본격화... 성장 한계 넘는다

9월부터 日 현지 법인 영업·운영
남매 후계구도 윤곽... 지배구조 정비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오뚜기가 글로벌 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에 이어 최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오뚜기는 지난 5월 15일 일본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에 이은 오뚜기의 네 번째 해외 현지법인이다. 일본 법인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지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접점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오뚜기는 일본 시장에서 주력인 라면류를 비롯해 K-소스, 참기름 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K-푸드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발 빠른 해외 거점 확보는 오뚜기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

오뚜기는 지난 3월 발표한 ‘2026년 기



지난 1월 전개한 윈터 팬시 푸드쇼 오뚜기 부스 전경. /오뚜기

업기치 제고 계획’을 통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뚜기가 해외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와 지난해 겪은 실적 부진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오뚜기는 연결 기준 매출 3조 674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으나, 영업이익(1773억 원)은 환율 상승, 원자재 단가 인상, 인건비 및 판촉비

증가 영향으로 20.2%나 감소했다. 특히 경쟁사인 농심(해외 비중 약 40%)과 삼양식품(해외 비중 80%대)이 가파른 해외 성장세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반면, 오뚜기는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다만 올해 들어 글로벌 전략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오뚜기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552억 원,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4%, 3.28%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1분기 해외 매출액은 10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비중도 지난해 1분기 10.9%에서 올해 11.5%로 0.6%p 상승했다. 잠자는 자본을 깨워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고 성장세가 가파른 해외 시장에 자본을 재배치하겠다는 전략이 일부 통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영토 확장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오뚜기 내부적으로는 안정적 인 후계 구도 승계와 지배구조 정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함영준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부장은 2021년 입사 후 경영관리부문을 거쳐 2025년 마케팅실 부장으로 승진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여기에 함 부장의 동생인 함연지 씨도 2024년부터 오뚜기 아메리카 마케팅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남매가 나란히 경영 수업을 받는 중이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이사회 정수를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오는 9월 시행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해 외부 경영 간섭을 방어하고 오너가의 승계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으로 팽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만큼 오뚜기 역시 해외 시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적이고 내실을 중시하던 오뚜기가 일본 법인 신설과 미국 공장 건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선선 기자 tree6834@



metro

美, 이란 군사공격 가능성 원유·가스가격 일제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다시 요동쳤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11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8시 기준 브렌트유(Brent)는 전일 대비 2.0% 상승한 배럴당 95.0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7% 상승한 93.35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원유·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WTI는 39.3%, 브렌트유는 31.1% 올랐으며, 아시아 JKM 가스 가격은 76.7%나 치솟은 상태다.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보합 수준이다. 이날 8시 기준 휘발유는 2009.79원, 경유는 2004.41원으로 각각 전일 대비 0.002% 상승, 0.013% 하락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18.7%, 25.5%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0시부터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6차 최고가격 고시를 시행 중이다.

정부 최고가격 시행으로 유가가 추가 상승 없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경우, 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30엔, 경유는 155.80엔으로 전일 대비 변동 폭이 0.1% 안팎에 그쳤다. 전쟁 전(2월 27일)과 비교해도 인상이 휘발유 8.06%, 경유 10.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는 갤런당 4.151달러, 경유는 5.303달러로 전쟁 전과 비교하면 각각 39.30%, 41.04% 상승해 국제유가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상의 “에너지 신사업 안착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

시장 경직성 지적... “PBP 전환해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안착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열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비용기반시장(CBP) 구조가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

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이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PBP)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넬토론에서는 민간투자를 유

인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서진 흥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윤지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전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인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

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력시장 개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中 CXMT 몸집 키워도... 삼성전자, AI 메모리 우위 부각

CXMT 점유율 7.67%로 확대
295억위안 상장자금 조달 추진

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5% 1위
HBM4 품질 테스트 첫 통과

범용 D램 공급 확대는 변수
가격 결정력 유지 여부 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중국 최대 D램 업체 CXMT의 몸집 키우기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추격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등 선두 업체의 지배력을 흔들기보다, 고성능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온다.

1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3.97%에서 4분기 7.67%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에 상하이 커황판(기술주 중심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약 295억위안의 자금을 조달하며 D램 기술 고도화와 첨단 공정 연구개발(R&D)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CXMT의

부상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 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고성능 AI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기존 3사의 기술 우위가 여전한 만큼 이번 상황이 오히려 선두 업체들의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XMT의 상장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과 대규모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저전력다블데이터레이트(LPDDR)5 등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장 성과 역시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

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38.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D램 매출 또한 전 분기 대비 95.4% 증가한 374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3사 가운데 가장 큰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효과를 누린 데다 고부가가치인 서버용 D램 매출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만드는 고부가가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1위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될 6세대 HBM4 제품의 품질 승인 테스트를 업계 최초로 통과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범용 D램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요 D램 생산 거점인 경기 화성과 평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신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며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우려와 달리, 외신 등에 따르면 CXMT의 DDR5 메모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

제품과 유사한 가격대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CXMT의 강점이 가격 경쟁력이 아닌 공급 능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SOCAM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이 낮은 만큼 일반 D램 물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CXMT의 기술 공정 수준이 아직 글로벌 선두 업체 대비 부족한 만큼, 단기내 시장 판도를 뒤엎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범용 D램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XMT가 단기내 HBM 등 고부가가치 AI 메모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범용 D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美 물가 4%대 재진입...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더 멀어져

5월 CPI 4.2%, 에너지가 건인 상승분 60% 이상 에너지 영향
근원 CPI 안정에 인상론 제한
FOMC 점도표 경계감 확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4%대에 다시 올라서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멀어지고 있다. 근원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즉각적인 인상론은 제한됐지만,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점도표와 달러·환율 경로를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오르며 지난 4월 3.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끌어 올린 주된 요인은 에너지였다. 5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9% 상승했다. BLS는 에너지가 월간 CPI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7.0% 뛰었다.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부담이 소비자물가에 빠르게 반영된 셈이다.

다만 물가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4월 근원 CPI가 전월 대

비 상승률이 0.4%였던 점을 감안하면 흐름은 오히려 낮아졌다.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아직 서비스와 상품 전반으로 번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시장 반응도 급격한 건축 재가속보다는 관망에 가까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CPI 발표 이후 달러인덱스는 0.2% 내린 99.81을 나타냈다.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1bp(0.01%포인트) 하락한 4.11%, 10년물 금리는 4.52%로 보험권에 머물렀다. 헤드라인 물가가 3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지만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고, 근원 물가 가속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 헤드라인 CPI가 4%를

넘어선 데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와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물가가 에너지 중심으로 올랐다고 해도 고유가가 길어질 경우 운송비와 항공료, 공공요금, 서비스가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FOMC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은 현지시간 16~17일 FOMC를 열고 기준금리와 함께 경제전망, 점도표를 발표한다. 이번 CPI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더라도 헤드라인 물가가 4%대로 올라선 만큼, 올해 금리 경로와 물가 전망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미국 물가 불안은 한국에도 변수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미 국제금리와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

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원화가 1500원대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경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이다. 국내 역시 물가와 환율 부담이 남아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선을 넘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시장 점검을 불렀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미국 물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더 어려워진다.

미국 CPI는 연준의 즉각적인 인상론을 키운 지표는 아니지만, 인하 기대를 되살릴 만한 지표도 아니었다.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근원 물가로 번질지, FOMC 점도표가 얼마나 때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으로 바뀔지가 한국의 환율과 금리 경로까지 좌우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자산도 소득도 벌어진다... 韓 경제 '복합 양극화' 경고등

집값 상승에 자산격차 고착
AI·산업 격차가 소득차 자극
청년·무주택층 자산 형성 난항

우리 경제가 자산격차와 소득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소득 양극화까지 키우면서 청년·무주택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 집값이 벌린 자산격차

연구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산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일시 조정되다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 자산 격차는 세대 간 격차로도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 자산 격차도 커지면서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소득을 쌓아도 부동산 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상위 자산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고소득임에도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 이른바 '헨리(HENRY·High Ea

mers, Not Rich Yet)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소득격차 재확대 조짐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지만 2024년 0.325로 소폭 반등했다.

연구진은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에 대비되는 K자형 성장 흐름이 산업 간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AI 확산도 소득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AI 기술이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고숙련 계층에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형 기자



삼성전자, 생성형 AI로 AX 전환 속도

▶▶ 1면 '샘 올트먼 방한...'서 계속

최근 삼성전자가 챗GPT와 구글 제미니, 엔트ropic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DX 부문에 공식 도입한 가운데, AI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DX부문 임직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며 전사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생성형 AI를 업무 환경에 접목하는 삼성전자의 AX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네이버 방문 가능성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올트먼 CEO가 이번 방한 기간 중 네이버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젠스 환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 팩토리과 풀스택 AI 인프라 협력을 공식화하는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오픈AI와의 접점이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픈AI와 국내 빅테크·반도체 기업 간 AI 협력 관계가 한층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AI시대 전력수요 잡아라... 정유 넘어 '종합 에너지 기업' 도약

③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중심 에너지 기업에서 전기와 가스, 배터리를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석유제품 수출과 정유 수익성에 기대던 기존 사업 구조를 LNG, 소형모듈원전(SMR),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넓히고 있다. 다만 정유 부문에는 유가와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배터리는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환의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 정유가 벌고 에너지 전환에 투자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정유 사업이 이끌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매출 24조2121억원, 영업이익 2조162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4조5408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8669억원 증가했다.

실적 개선에는 정유 사업을 담당하는 SK에너지의 수익성 회복이 크게 작용했다. SK에너지는 1분기 매출 11조9786억원, 영업이익 1조2832억원을 거뒀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과 수출 여건 개선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1분기 매출 24.2조, 영업이익 2.1조 SK에너지, 유가상승에 수익성 회복

SK이노, 울산CLX 중심 정제·생산
바로사 프로젝트로 LNG 확보 예정
베트남 LNG 관련 최종사업자 선정

울산CLX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제·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해외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출은 국내 정유사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 4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원유도입액의 59.5% 수준에 달했다. 호주는 4년 연속 최대 수출국을 차지했고, 미국향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유 사업에서 확보한 현금창출력은 LNG와 SMR, 배터리·ESS 등 미래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정제·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 실적을 방어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업 구조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원유 도입과 내수 공급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가 변동에 따른 수익성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 사업은 SK이노베이션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지만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수출 확대와 함께 원유 조달 안정성, 내수 공급 대응력, 미래 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① SK이노베이션 울산복합플렉스(CLX) 전경. ② 호주 바로사 가스전(개발 단계). ③ 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④ SK온 인터배터리 2026 전시관 내 ESS 제품.

/SK이노베이션 E&S·SK온

◆ LNG·SMR로 넓어지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SK이노베이션의 체질 전환은 LNG에서 먼저 가시화됐다. SK이노베이션 E&S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첫 LNG 물량을 국내에 들여왔다. 바로사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연 130만 규모의 LNG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해외 발전 사업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응에안성 관할 지역에서 추진하는 LNG 복합화력 발전 및 터미널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1.5GW급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투자비는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다.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정유 중심 기업이 LNG 밸류체인을 해외 발전 인프라로 확장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MR 투자도 에너지 사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추진되는 핵심 분야다. SK이노베이션은 SK(주)와 함께 2022년 미국 테라파워에 약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원전 기업으로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 지역에서 첨단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올해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는 미국에서 약 10

년 만에 나온 상업용 원전 건설 허가이자 비경수로 상업용 원전 건설 허가로는 40여 년 만의 사례로 평가된다. 케머러 1호기는 2031년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주)와 테라파워에 2.5억 弗 투자 AI 확대 속 안정적 무탄소 전원 확보

SK온, 글로벌 완성차 배터리 공급 AIDC 전력 등서 ESS 수요 맞물려

정유, 유가·정제마진 따라 변동성 LNG·SMR, 투자 회수 기간 필요
배터리·ESS, 안정적 이익 입증해야

SMR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확대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는 에너지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와 화학에서 확보한 현금창출력을 전력 인프라 영역으로 넓히려는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배터리·ESS, 적자 넘어 전력 수요로 연결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의 미래 에너지 전환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미국, 헝가리, 중국 등에 생

산기지를 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개선은 더디지만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ESS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온은 올해 국내 제2차 중앙계약 시장 ESS 입찰에서 전체 565MW 가운데 284MW를 확보하며 50.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ESS로 넓히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흐름이다.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전기화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쓰고 전력망은 저장장치를 필요로 하며 안정적인 전원 확보 없이는 AI 인프라도 지속되기 어렵다. SK이노베이션이 LNG와 SMR, 배터리·ESS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도 단순한 정유·화학 사업을 넘어 전력 공급과 저장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 역시 정유를 기반으로 LNG와 SMR, 배터리·ESS를 연결하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사업의 성장성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기업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이 해야 할 일 국민의 내일을 키우는 일

재산은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것

세상을 키우는 것이 금융의 의미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백 년 전 경주 최부자의 철학처럼
KB가 세상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산업에
금융을 연결하고,
더 많은 가능성과 일자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대한민국의 내일이 자라는 곳마다
KB의 생산적 금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주선

KB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
영상 시청하기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KB의 생산적 금융]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금융주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1,6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여
차세대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지 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투표용지 부족 논란 국정조사 본격화... 여야 협상 줄다리기

필요성엔 동의, 범위·방식 입장 차
민주, 다음주 국조계획서 채택 추진
국힘, 야당이 위원장 맡는 특별요구



김승묵 국회의사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뉴스시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협상에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의 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여야는 조사계획서 성안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성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조사계획서를 완성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한-EU 정상,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정상회담 갖고 공동성명 채택
北 비핵화·우크라이나 평화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및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이사회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은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한-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

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 관련 해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



G7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을 개시하고 디지털통상협정과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론 분출... 사퇴 요구 잇따라

대표 거취 문제, 당내 주요 현안
전대·당 재정비 과정 '핵심 변수'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도전하려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90여분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장 등 일부 지역 패배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연임을 도전하려면 정 대표가 당 대표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시장 석패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데 당 차원 전략, 더 많은 자원 투입, 우리 스스로 각성 등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스시스

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정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더 갖춰 나갈지 고민과 조치들, 그것에 맞는 행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도운 임미애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경북 유세 덕분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 많은 선전을 이뤘다"고 감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갈등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정 대표가 빠르게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

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하겠다 다짐과 결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소장파 의원들도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면전에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셔서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갈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 사퇴하는 것을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고성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소장파 의원인 '대안과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참패에 책임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 당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장 대표 거취, 참정권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OPENHOPE

올원모임통장

모인다는 건
함께 희망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
열어보세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희망 가득 NH올원모임통장



희망을 키워주는
최대 2.5% 금리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0원
응원은 조건 없이
금융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및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손쉽게 함께하는
모임원 간편 초대

모임 관리를 편하게
회비 납부 현황판

[NH올원모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 개인 ■ 가입방법: 영업점, 비대면(NH올원뱅크) ■ 기본이자율: 0.1%(26.04.07. 기준, 연/세전) ■ 우대이자율: 최고 2.4%(7분이자율 포함 시 최고 2.5% 연/세전, 일별 잔액 3백만 원까지 적용) ① NH올원모임서비스에 모임개좌 등록 및 해당 모임에 모임원 2명 이상 유지 : 1.9%p ② ①번 조건 충족 및 결산일이 포함된 월의 전월·전전월 2개월 간 해당 계좌에 2건 이상 입금 건이 있는 경우: 0.5%p ■ 이자 지급 시기: 매월의 이자를 계산하여 3.6.9.12월 넷째 토요일에 계산 후 다음날 지급 ■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스마트뱅킹)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농·축협 기기 제외) * 가입기간 동안 이 통장으로 거래 시 매월 조건 없이 제공 ■ 유의사항: 이 상품을 NH올원모임서비스 모임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금주(모임주) 본인 명의 계좌이므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의무사항은 모임주에게 귀속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인정'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입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출금 및 이체 등 잔액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이벤트 및 상품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6-06139호 (2026.04.17.~2027.04.16.)

가상자산 선진화법안 논의 지지부진... 연내 통과도 불투명

여·야 '디지털자산법' 논의 공감 상임위 등 국회 재편에 시간 걸리고 美 상원 '클래리티법' 논의 정체 "거래소들, 수익 99% 수수료 의존 법인거래 허용 등 규제 해소 절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국내 가상 자산 관련법 및 규제 선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재편에 들어가며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렸고, 해외에서도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지연되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포함한 원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앞선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에 각각 48일과 54일이 소요됐던 만큼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가 재편 과정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이 예고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자

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현안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

의 입법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 상황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통화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송금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금융업의 차세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야 간의 공감대에도 법안 논의 재개

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논의할 정부위원회의 원 구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2년 임기의 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다. 법안을 주도했던 여당 디지털자산TF도 하반기 국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관련 논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해 중북규제를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미 상원에서 입법이 정체되고 있다. 지난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이 최종 인준된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완화 등 법안 내용 일부에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입법을 위한 협상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논의 및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주요 거래소의 매출이 급감한 만큼, 국내거래소의 생존을 위해선 법인거래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수익의 99%를 개인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감한 현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는 생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기본법이 통과되고 법인거래 허용 등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증시 활황' 금융권 가계대출 9.3조 증가

금융위, 5월 말 은행권서만 6.9조 ↑ 신용대출·마이뉴스통장 등 급증 영향 주담대 940.8조... 한달새 3.2조 증가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마이뉴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이끌었다. 기타대출 잔액은 2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늘었다.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개인투자자

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뉴스통장 이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0조8000억원으로 한달 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세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전세거래량은 4월 3만9000호로 전달 4만7000호 보다 8000호 감소했다.

한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7000억원 증가로 전월(2조1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은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

세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신진장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등에 따라 출화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객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활용한 대출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외국인 결제편의성 개선 나서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방한 외국인 결제 편의성 개선 및 공동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금융·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고객 대상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외국인 전용 디지털 지갑'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공동 개발한다. 여권 정보와 결제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이동 ▲배달 ▲쇼핑 등 생활 플랫폼에서 별도 추가 인증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외국인이 자국 화폐로 충전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도 출시한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내 결제 환경 테스트도 함께 진행해 방한 외국인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



목일진 우리은행 AX혁신그룹 부행장(왼쪽)과 김재설 크로스허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는 결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크로스허브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NNOlab)' 참여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기업'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핀테크 기업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디노랩 육성 기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이억원 "내후년, 지방에 정책금융 164조 공급"

'정책금융 동행' 행사 "韓 도약 위해 지역이 성장중심 돼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정책금융 동행' 행사에 참석해 "총청권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첨단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기존 산은·기은·신보·기보 외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추가 참여할 계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획"이라며 "오는 2028년에는 2025년(130조원) 대비 34조원 증가한 연 164조원의 정책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고, 관련 지역·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

생 협력 특례 상품을 공급한다. 지역 에너지 대전환과 한국형 녹색전환(K-GX)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과 주요산업의 녹색전환이 지역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충실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방 우대 금융의 상시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핵심성과지표(KPI)에 지방 우대 금융 지표를 반영하겠다"며 "지역 정책금융 허브, 창업 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銀 "퇴직연금, 모바일 가입하세요"

가입과정 직원이 실시간 확인·상담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기반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신규가입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퇴직연금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가입 신청부터 규약 동의 이후 운용상품 등록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가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과정에서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원격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비대면 접수에 상담과 가입지원을 결합한 하이브리

드 방식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담당자만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수임 프로세스'도 도입해 안정성과 내부통제 수준도 강화했다.

BNK부산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고객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점의 서류 처리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영 BNK부산은행 WM·연금그룹장은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퇴직연금 신규가입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지털 연금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중심의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수입차시장, 친환경 모델 중심 재편... 中 브랜드 존재감 커져

1~5월 신규등록 14만5973대 집계
전년비 32% ↑... 테슬라 점유율 1위
中 신차 출시·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국내 수입차 시장이 친환경차 모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랜 기간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 전기차 브랜드에 이어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수입차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신차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만5973대로 전년 동기대비 32.3% 증가했으며, 그 중심에는 친환경차가 자리하고 있다.



지커 코리아 중형 SUV '7X'.

테슬라의 경우 지난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만5020대로 시장 점유율 30.84% 1위에 이름을 올렸다. BMW(3만2581대)와 메르세데스-벤츠(3553대)가 뒤를 잇고 있지만 격차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테슬라의 상승세가 장기화 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테슬라 서비스센터는 16곳에 불과하다. 판매

량은 급증하지만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비스센터와 수리 대기, 부품 공급 등의 문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 완성차 브랜드의 가파른 상승세는 주목할 부분이다.

BYD는 공격적인 가격 경쟁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 5월까지 7023대를 판매하며

5월에 등극했다. BYD는 돌핀 2450만원, 아토3 플러스 3350만원, 쉐 3990만원, 쉐 라이언7 449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YD는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DualMode-intelligent)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이후 올 하반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커가 프리미엄 전동화 모델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지커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의 국내 인증을 마치고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지커 7X와 001은 테슬라 모델 Y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이 경쟁 차종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BYD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면 지커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신차 출시와 함께 전시장과 서비스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BYD는 현재 전시장 33개, 서비스센터 1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시장 35개, 서비스센터 26개 등 공격적으로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커는 현재 서울(강남·서초·강서), 경기권(판교·일산·인천·수원), 충청권(대전), 경상권(부산) 등 전국 9개 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시장 14개, 서비스센터 11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입차 시장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본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있었다면 지난해부터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 전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공식 도입

챗GPT, 제미니, 클로드 등 활용
업무 특성·목적에 따라 최적 선택

삼성전자가 챗GPT와 제미니, 클로드 등 글로벌 빅테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특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업무 목적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DX부문은 12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DX부문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챗GPT, 제미니, 엔터프라이즈, 클로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26년 말까지 전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40%가 AI 에이전트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

성형 AI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AX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정 1개 AI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업무별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를 일회성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직원 누구나 최적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임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후보군에 대한 서비스 실효성 검증을 거쳐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대표 생성형 AI 서비스 3종을 선정하고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업무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속도 ▲조

직 전반의 실행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DX부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사진)은 "외부 생성형 AI 도입은 단순히 업무 도구로서 AI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실행 속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임직원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 가장 적합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을 넘어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DX부문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S에코에너지, K-철도 공급망 합류

LSCV, 현대로템에 케이블 공급

LS에코에너지가 현대로템 공급망에 진입하며 철도용 특수 케이블 사업 확대에 나섰다.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 첫 공급을 계기로 도시철도와 산업 인프라 분야로 고부가 케이블 공급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가 최근 현대로템에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을 처음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 제품은 대전과 울산 도시철도 수소트램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철도 차량용 통신 케이블은 열차 내 제어장치와 통신 시스템을 연결해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핵심 부품이다.

철도 차량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부품에도 높은 품질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구된다. 특히 철도 차량용 부품은 검증된 공급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공급 실적 확보 자체가 향후 사업

확대의 기반이 된다.

LS에코에너지는 이번 공급을 통해 철도용 특수 케이블 분야에서 첫 공급 실적을 확보했다. 현대로템이 국내외 철도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후속 공급 기회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과 동남아 철도 인프라 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베트남 정부가 남북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등 대규모 철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특수 케이블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LS에코에너지는 현지 생산기자인 LSCV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철도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현대로템 공급망 진입과 철도용 특수 케이블 시장 진출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대로템과 협력을 확대하고 K-철도의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글로벌 HVDC 동맹... 수주 경쟁력 높인다

한-EU 에너지 전환 상생협력 포럼
안데를·보스칼리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전선이 글로벌 해양 인프라 전문 기업과 손잡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케이블 제조 역량에 해상 설치·시공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하면서 대형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전선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에너지 전환 상생협력 포럼에서 벨기에 안데를, 네덜란드 보스칼리스와 각각 HVDC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마련한 행사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인프라 확충



송중민 대한전선 부회장(왼쪽부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 피터 데 누(Jan Pieter De Nul) 안데를 최고경영자(CEO)가 HVDC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과 EU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

다. 유럽에서는 지멘스, RWE, TenneT 등 전력회사와 송배전망 운영사, 설계·조달·시공(EPC)·해양 인프라 기업들이 자리했다. 대한전선에서는 송중민 부회장이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포럼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의 협력 파트너사인 안데를과 보스칼리스는 해상풍력, 해양 인프라, 해저 케이블 설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VDC 해저케이블과 관련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모색할 계획이다.

송중민 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HVDC 전력망 분야의 기술 및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그룹, 사내 신생기업 3곳 분사

포지티브플로, 웨어비, 자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도유망한 사내 신생기업(스타트업) 3곳을 분사했다.

현대차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퍼니빌더'가 지난 1년 동안 육성된 포지티브플로, 웨어비, 자비스를 독립 기업으로 분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지티브플로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매트리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에 부착한 인공지능(AI) 센서가 이용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한 다음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해 숙면을 돕는다. 최근에는 현대건설과 슬립테크(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웨어비는 고정밀 위치센서에 기반한 산업용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안전

모와 조끼 등을 착용한 작업자와 무인운반차, 트럭 등이 서로의 위치를 쌍방향으로 전송한다. 사람과 차량의 위치를 오차 범위 10cm 이내로 파악해 작업장 내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웨어비의 사업 목표다. 기아 화성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서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비스는 차량용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이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SW 개발 시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작성하거나 사람이 코딩해 오류가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용 SW 개발에 필요한 표준 도구와 코딩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번 3개 회사의 분사로 현대차그룹에서 독립한 사내 스타트업은 총 44곳으로 늘었다. /양성운 기자

삼성 4000억 온누리 효과 기대... 전통시장·골목상권 '숨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휴대폰·가전 등 구입시 20% 환급 내달 5일까지 제품 구매고객 대상 개인정보 입력하면 조폐공사 충전 구매내역서·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年매출 30억 초과 점포 사용 제한 병원·한의원 등 가맹점서는 제외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구매 모든 고객에게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울상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종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조5000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은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약 7000억원 늘었다.

〈디지털온누리 vs 지류 온누리상품권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 방법	앱에서 본인인증 후 충전	금융기관 방문 구매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온라인 전통시장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 방식	카드결제, QR결제	지류 상품권으로 실물 결제
환불/교환	◆ 충전일로부터 7일 내 취소가능 ◆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60%이상 사용시 환불 가능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처에서 환불
추천 대상	앱 사용이 편한 사용자	앱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
장점 비교	◆ 온라인·배달앱 등 다양한 사용처 제공 ◆ 지류 상품권보다 높은 할인율 제공 ◆ 분실 위험 없이 충전과 사용 가능	노령층의 사용이 편리

삼성전자가 성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제품 구입 가격의 20%, 총 4000억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하면서 상품권 소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감사 페스티벌' 기간이 오는 7월 5일까지로, 이어서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선물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이는 곧 소비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진공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현재는 7%, 명절의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이 있지만 기업이 구매할 때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산 고객의 데이터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회사인 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가면 조폐공사가 고객 휴대폰의 디지털 온누리 앱

에 해당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페스티벌 기간(7월5일까지) 안에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를 등록한 후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과 함께 구매처를 입력하는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일자와 주문번호, 구매금액이 담긴 정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다면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요금에 따라 구매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6 256G 모델의 환급액은 23만5000원, 갤럭시 S26 울트라 256G 모델은 33만7000원 등이다.

디지털을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나 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연매출 30억원 기준과 관계 없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한업종은 총 33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벨기에와 中企·스타트업 유럽 진출길 확대

중기부, 브뤼셀서 협력 MOU
중소기업 분야 첫 정부 간 협력
정책대화로 스타트업 지원 강화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 125주년을 맞아 양국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1901년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 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연방 정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벨기에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관문으로 창업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닥테크 스타트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벨기에 MOU 체결식'에서 엘레오노르 시모네(Eleonore SIMONET) 벨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럽 진출 전초기지이자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책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교류 및 기술협력, 비즈니스 매칭 사업 추진 등이 반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과 벨기에 엘레오노르 시모네 중소기업·자영업자부 장관은 양해

각서 체결 후 정책 교류방안 논의 등을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노용석 차관은 벨기에의 비즈니스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연계한 스타트업 협력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6'에 벨기에 정부 관계자와 스타트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지난 달 개소한 글로벌 창업 협업공간인 SVC 서울을 소개하고, 정책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노 차관은 "벨기에에는 '유럽연합의 심장'으로 불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벨기에 연방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에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 차관은 같은 날 오전 '벨기에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EU(유럽연합) 통상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승호 기자

하이엠솔루텍, 원격 유지보수 1만곳 돌파

5월 기준 TMS 연결 1만773곳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LG전자 냉난방공조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의 실시간 원격 유지보수 솔루션(TMS) 연결 현장이 전국 1만개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냉방 설비 안정 운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후 수리보다 고장을 미리 예방하는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TMS 연결 현장 수가 1만773개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18% 늘어난 수준이다.

냉방 설비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사업 손실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 수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유지보수를 통해 설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고 하이엠솔루텍은 설명했다.

TMS는 LG전자의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LG 비콘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냉난방 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다.

하이엠솔루텍은 T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진단·제어 ▲AI 고장 예측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을 PC와 모바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TMS가 연결된 현장의 설비 운전 상태를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서비스다. 설비에 예러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이엠솔루텍 상황관제실과 고객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리바트 용인 스마트워크센터 K-가구공장 위상 입증

현대리바트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지속 가능한 'K-가구공장'으로 인정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리바트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2026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의 공식 현장 견학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69회째를 맞는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는 목재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목재과학기술학회(SWST)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오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 개최는 1958년 학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승호 기자

홈씨씨, 펫테리어 바닥재 '숲 도담' 리뉴얼

KCC클라스, 스크래치·충격 흡수 강화

KCC클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위한 프리미엄 PVC 바닥재 '숲 도담'을 리뉴얼 출시했다.

11일 KCC클라스에 따르면 숲 도담은 어린이가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 '도담도담'에서 따온 제품명으로 KCC클라스만의 '듀얼(Dual) 공법'을 적용해 기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캘린더(Calender) 공법'의 고강도 표면 투명층은 스크래치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고 '솔(SOL) 공법'의 고탄력 쿠션층은 점프나 보행 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숲 도담은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에겐협회 및 KOTITIT 시험연구원의 반려동물 제품 인증(PS인증)을 획득한 펫테리어(Pet+Interior) 바닥재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논슬립 시험에서는 반려견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미끄럼 저항성이 건식과 습식 환경 모두에서 일반 감마루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초격차 스타트업 앞세워 산업 현장 AX 지원

창진원, 수요 대기업 등 27곳 최종 선정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 37곳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27개사를 연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나섰다. 창진원은 링크업(Link-up)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 창업기업-수요기업 및업데이'를 지난 10일 서울 흥대 SVC 서울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격차 창업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국내의 우수 수요기업의 산업 현장 기반시설을 결합해 AX를 실현하는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수요기업에게는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돕고, 창업기업에게는 실증 경험 확보 및 판로 구축의 기회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종 연계된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수요기업은 총 47개사가 신청해 1.6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1개사, 병원 3개, 공공기관 6개 등 총 27개사의 수요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초격차 창업기업 역시 평가를 거쳐 AI 기술력을 보유한 37개사를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차량 실내 살균 신기술 개발

200~230nm 원자외선 살균 활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실내 공간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세균에만 작용하는 UVC(자외선) 파장대를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구현한 '플라즈마 케어 UVC'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술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만들기 어려운 200~230nm 대역의 원자외선 빛을 살균에 활용한다.

원자외선 빛은 살균 효과를 내면서도 투과성이 낮아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만 도달해 체내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한주 현대차·기아 MSV 내장설계2팀 책임연구원은 "플라즈마 케어 UVC는 기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만 살균하는 방식을 넘어 탑승자가 있는 실내 개방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SKT, AIDC 중심 '기업 AX' 공략 엔스로픽 추가 투자로 주도권 확보

엔스로픽, '헌법적 AI' 방식 주력
SKT,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
H·대만 기업과 5.7억 펀드 조성도
국내 AI 인프라, 동남아 시장 연결
풀스택 AI 전략 통해 경쟁력 확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기업의 AI 전환(AX) 수요를 흡수해 새로운 매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약 1300억원 규모의 소수 지분 투자를 단행한데 이어 최근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다. 회사 측은 엔스로픽이 보유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엔스로픽과 공동 사업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엔스로픽은 창업 초기부터 유해한 답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헌법적 AI 방식에 주력해왔다. 이는 고객 정보와 내부 문서를 다루는 기업 고객에 민감한 요소다. 기업 고객을 공략하는 SK텔레콤은 이를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투자는 AI 인프라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NTT, 대만 중화텔레콤과 약 5억7600억원 규모의 글로벌 AI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출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광통신과 반도체·전력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특히 NTT가 보유한 광전용 합 기술은 전기신호의 일부를 광신호로 대체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활용된다. 여러 데이터센터와 GPU를 효율적으로 연결



지난 10일 일본 도쿄 NTT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아이온 AI 펀드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해 하나의 연산망처럼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인프라를 일본과 대만, 동남아 시장으로 연결하고 미국에 집중된 기업 고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는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풀스택 AI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더 강도 높은 기술 협력이 이뤄지면서다. 지난해 SK그룹과 공동 추진하는 울산 AIDC 구축 사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약 4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대신, 내부에 AWS AI 전용 공간을 만들고 AWS가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엔비디아와 협력은 GPU 탑재와 건물 설비까지 하나의 시스템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픈AI와도 서남권에 전용 AIDC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는 업무협약 단계로, 부지와 투자 규모·착공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력은 AI 인프라 경쟁력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다만 협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핵심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외부 의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PU는 엔비디아, 클라우드·AI 서비스는 AWS와 오픈AI, LLM은 엔스로픽,

광통신 기술은 NTT가 각각 주도하고 있어서다.

결국 관건은 외부 기술과 흡수한 투자를 독자적인 서비스로 가공해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인프라 사용료 이상의 부가가치를 확보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선점을 통한 수익성 확보도 숙제다. SK텔레콤이 구축하고 있는 AI 사업은 기업이 고가의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임대해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기존에 대규모 투자 비용을 들여 통신망을 구축한 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는 사업 방식을 AI 연산 시장에 옮긴 셈이다.

기존 통신사업은 네트워크 유지·고도화와 마케팅에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매출 증가 폭은 제한되면서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굳어졌다. AI 인프라 사업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고객과 가동률을 선점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안정적인 사용료 매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올해 3월 AI 인프라와 내부 시스템 전환에 조 단위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

msoj@metroseoul.co.kr



metro

LG CNS-LX판토스 풀스택 로봇전환 속도 차세대 스마트물류 구축

LG CNS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세워 제조·물류 기업 고객 확보에 나섰다. 최근 출시한 로봇 학습·운영 플랫폼 피지컬 워스를 결합해 풀스택 로봇전환(RX) 서비스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 CNS는 종합 물류기업 LX판토스와 차세대 스마트물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판토스 청라 물류센터에 LG CNS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셔플 로봇을 연계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셔플 로봇이 창고에서 출구 예정 물품을 반출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품을 받아 자동 분류 설비나 로봇에 적재한다. 이후 목적지별로 출고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로봇 하드웨어는 텍스메이트의 휠타입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체 개발한 물류 로봇 '모바일 셔플'을 활용한다. /조민선 기자

KT, 경기도 스타트업 대상 AX 세미나 진행

'KT AX 이머전 데이 2026 경기' 성료

KT는 'KT AX 이머전 데이 2026 경기'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창업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경기 소재 IT·게임·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과 업무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한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브릭스코리아, KT클라우드드는 스타트업이 업무 환경에 맞는 AI 전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WS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AI 엔지니어링 3.0: 허네스가 만드는 새로운 빌드 패러다임' 세션에서는 '허네스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변화하는 개발·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허네스 엔지니어링이란 AI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 주변의 실행 환경과 통제 체계를 설계하는 기술이



KT 관계자가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창업촌에서 열린 'AX 이머전 데이'에서 KT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KT

다. 이 밖에 데이터브릭스코리아는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KT는 '클라우드플렉스'를 활용한 고객 업무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클라우드 플렉스는 고객 환경에 맞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적화해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전용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고성능·고보안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온디맨드 방식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게임산업, AI 시대 기반된다 콘텐츠 기술 융합으로 재편

오늘 AI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가치 재조명
가상공간서 AI 학습시키는 방식 '주목'
구글·엔비디아 등 게임과 점점 확대

게임산업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트윈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받는 분위기다. AI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게임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계 안팎에서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AI 시대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게임 엔진과 물리 시뮬레이션, 가상환경 구축 기술이 AI 학습과 로봇 개발, 디지털 트윈 구현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정책적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학습 과정이 필수적이다. 실제 환경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학습시키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업계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3차원 그래픽과 물리엔진,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게임과 AI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게임 환경을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와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달 열리는 '2026 넥스 개발자 콘퍼런스(NDC)'에서도 별도 세션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엔비디아 역시 로봇 개발 플랫폼

폼 '옵니버스'를 통해 게임 기술 기반의 디지털 트윈과 AI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NC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현대로템, 포스코DX 등과 피지컬 AI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시키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넥슨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게임 개발 사례를 NDC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크래프톤도 AI 기술을 게임 제작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이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산업 자체를 떠받치는 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국방,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대규모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 지원이 콘텐츠 제작과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AI 융합과 첨단 기술 인재 양성, 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AI와 콘텐츠 기술 융합을 미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생태계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게임산업 역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콘텐츠를 넘어 첨단 기술 산업의 기반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게임이 한국 AI 경쟁력을 뒷받침할 미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

엔비디아, 6G 무선 안테나칩 개발 박차

AI-RAN 전략, 안테나까지 확대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시대를 겨냥해 기지국 무선 안테나(RU)용 전용 칩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AI-RAN 전략을 중앙처리장치(CU)와 분산처리장치(DU)를 넘어 안테나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지국 무선장비에 GPU 기반 컴퓨팅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AI-RAN 전략 고도화에 착수했다. 정보통신 전문매체 라이프라이딩은 엔비디아가 6G 환경에서 필요한 빔포밍 연산을 담당하는 RU용 ASIC을 GPU 기반 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AI-RAN 전략은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활용해 CU와 DU에 적용되는 전용 ASIC을 대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6G 시대에는 매시브 MIMO 기술이 본격 확산되면서 안테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연산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RU에 적용되는 안테나 수는 최대 128개 수준이지만, 6G 환경에서는 1024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빔포밍 처리에 필요한 연산량



엔비디아 홈페이지 갈무리.

도 크게 증가해 기존 전용 반도체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이미 RU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인 마벨에 올해 20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DU 시장을 넘어 RU 시장까지 AI-RAN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GPU 기반 컴퓨팅이 RU 영역에 적용될 경우 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상용화 과정에서 전력 효율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공포지수 최고치에도 개미들, 반도체 레버리지로 몰렸다

상위 4개 상품에 3.7조 이상 유입
삼전·하닉 2배 ETF 수익률 하위권
주가 하락,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도 하락을 위험보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주 일간 자금유입 상위 금융투자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휩쓸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2208억원이 유입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조17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442억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36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4개 상품에만 3조7000억원이 넘

는 자금이 몰렸다. SK하이닉스(24.67%)와 삼성전자(17.89%)를 합산 42.56% 비중으로 편입한 SOL AI반도체 TOP2플러스(순자산 7423억원)까지 포함하면, 순자산 상위권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 ETF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시장 분위기와는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지

난 9일 장중 91.23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도 장중 87.96을 기록하며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초 30선 수준이던 지수가 석 달여 만에 세 배 가까이 뛴 셈이다.

통상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인버스 상품 등 방어형 상품으로 이동한다. 실제 최근 1주

수익률 상위권도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다. PLUS 삼성전자선물인버스2X는 26.0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PLUS 200선물인버스2X(19.25%), KODEX 200선물인버스2X(18.99%), RISE 200선물인버스2X(18.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상품들의 성과는 부진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근 1주 수익률이 -28.83%를 기록했고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28.89%)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냈다.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33.04%)와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33.32%) 역시 수익률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 하위권 상품에 자금이 집중됐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을 업황 악화 신호가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발 기술주 조정과 중동 리스크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는 점도 저가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삼성전자 48만5714원, SK하이닉스 330만8333원으로 10일 증가 대비 각각 6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총족률이 50% 수준에 불과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장기 낙관론이 레버리지 상품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스페이스X 몸값 2660조 두고 ‘갑론을박’

모닝스타 “사업 계획, 난제에 의존”
아크인베스트 “현실 성장제도 근거”
엇갈린 평가 속 투자자 손실 우려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1일 주당 135달러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며 기업 가치 1조7500억달러(약 2660조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몸값의 적정성을 두고 투자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가치를 7800억달러(약 1200조원)로 평가했다. 이는 목표 몸값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이스X의 사업 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공학적 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페이스X를 최대 보유 종목으로

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는 1조7500억달러 안팎의 목표 가치가 미래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성장제도에 근거한다”고 평가했다.

아크는 오히려 2030년까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2조5000억달러(약 3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의 상장 전 영구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스페이스X의 예상 시가총액이 5월 말 2조3000억달러(약 3496조원) 이상에서 약 2조달러(약 3040조원)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첫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이후

몇 주 사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대학교 제이 리더 명예교수가 집계한 과거 자료에 따르면 IPO 종목의 약 4분의 1이 상장 후 3년 내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거 큰 기대를 모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대형 기술주들의 상장 1년 차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FactSet) 데이터에 기반한 주요 기술기업의 상장 후 1년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승자 공유 플랫폼 우버는 21%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은 31%나 폭락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상장 후 1년간 첫날 증가 대비 153% 폭등하며 최고의 성과를 냈고 에어비앤비(25%)와 테슬라(18%)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ETF CHECK, 차세대 정보 플랫폼 ‘우뚛’

코스콤, 일평균 100만건 트래픽
기관 투자자금 고정밀 분석환경 지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총액 5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정보 경쟁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상품수가 급증하고 투자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은 ETF를 선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됐다.

코스콤의 ETF 정보 플랫폼 ‘ETF CHECK’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국내의 상장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시장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자에게는 상품 비교와 분석을 위한 ‘정보 창구’ 역할을, 자산운용사에게는 투자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마케팅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시의성+정밀성’ 두 마리 토끼… 신뢰도 높은 선두 플랫폼

ETF CHECK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배경에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 역량을 꼽을 수 있다. ETF는 장중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ETF CHECK는 실시간 투자지표를 비롯해 자금 유입 현황, 괴리율, 배당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밀성과 시의성을 모두 잡은 것이다.

특히 ETF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는 투자자가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산운용사 역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ETF CHECK는 단순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넘어 ETF 시장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ETF CHECK는 일평균 100만건 이상의 트래픽과 ETF 투자에 고도로 집중된 전문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들에 신규 상품과 성과를 타깃 고객층에게 완벽히 노출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돼 주고 있다. 동



코스콤은 상장지수펀드(ETF) 정보 플랫폼 ‘ETF CHECK’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코스콤

시에 정보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이었던 개인 투자자(B2C)들에게는 기관 투자자급의 고정밀 분석 환경을 지원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 외국인 투자자도 한눈에… ‘영문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조준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500조원 돌파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에 직접 진입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ETF CHECK는 영문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영역이 영문으로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국내 투자자들과 다름없이 실시간 정보와 테마별 포트폴리오 분석 데이터를 모바일 및 웹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국내 시장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ETF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ETF CHECK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대한민국 ETF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온 선두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강력히 지원하는 선두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영문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금융 고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운용, 삼전·닉스 레버리지 순매수 1위

2종 합산 4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가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기준 각각 약 2조4000억원, 2조원을 기록해 2종 합산 4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누적 개인 순매수 2조3881억원을 기록, 같은 상품군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KODEX 삼성전자 단일종목레버리지’ 역시 1조9815억원의 누적 개인 순매수를 보이며 각각의 레버리지 상품군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매수세에 힘입어 순자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7138억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1461억원으로, 두 상품의 합산 순자산 규모만 4조8599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리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장에서 증명된 풍부한 거래량과 유동성이다.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7614억원,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가 1조9721억원에 달한다. 일일 평균 거래량 또한 각각 약 1억364만주, 약 7779만주라는 제1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플랫폼’ 구축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모험자본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모험자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벤처캐피탈(VC), 중소·벤처기업 간 투자 정보를 연결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네이버페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증권사, 벤처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플랫폼’ 설명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플랫폼은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투자 대상 발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플랫폼에는 증권사와 VC,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투자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허정윤 기자

10년 공들인 K-벼 프로젝트, 아프리카 식량난 해법 제시

농진청, 아프리카 파트너십 결실
15개국서 벼 품종 71개 개발·등록
23개국 벼 육종가 44명 배출 성공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현장.

/농진청

농촌진흥청이 그간 추진한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15개국에서 벼 품종 70여 개를 개발하고 벼 육종가 44명을 배출해 내는 성과를 냈다. 무려 10년 가까이 공들여 온 이 사업은, 한국의 통일형 벼 품종과 육종기술 등을 활용해 현지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지급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진청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 사업(2016~2025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벼 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쌀은 아프리카에서 옥수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탓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벼 생산성은 헥타르(ha)당 2.4톤(t)으로 아시아(5.0t)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쌀 수요가 매년 6% 넘게 증가하며 주요 소비국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약 배양(꽃가루배양) 기술과 밀양, 태백, 한아름 등 통일형 벼 품종을 활용해 다수확 품종 개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5개국에서 총 71개 품종을 개발·등록했다. 이들 품종의 수량은 대부분 ha당 6.6~6.8t 수준으로 현

지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고 밥맛과 향도 우수하다.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네갈에서는 이슬리(ISRIZ) 6·7·16·17·P01·P02 등 6개 품종이 개발·보급됐다. 이 가운데 이슬리 6과 이슬리 7은 각각 한국 품종인 밀양23호와 태백을 기반으로 육종한 품종이다. 수량이 ha당

7.2~7.5t으로, 현지 품종인 사헬 대비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봉에서는 세이, 음보마, 무카파시 등 3개 품종이 개발·등록됐다. 이들 품종은 통일형 벼 품종인 밀양과 한아름 등을 활용해 육종했고, 수량은 ha당 7~8t 수준이다. 특히 가봉은 지난해 8월 이들 품종을 자국 최초의 벼 품종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가봉농업연구소(IRAF) 소속 윤넬 무쿰비 박사의 계획안도 전해졌다.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쌀 생산을 위해 3개 품종에 대해 약 9 정도 물량 확보를 목표로 종자를 증식하고 있다. 80명의 벼 재배 전문인력도 양성 중”이라고 했다. 또 “올해 전국 60개 농업협동조합 1100여 명의 농업인이 세이 품종을 중심으로 벼 시험재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종개발과 더불어 현지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4개월 집중 훈련을 통해 23개국에서 총 44명의 벼 육종가를 배출했다.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 거점국에 우

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아프리카 전역에 종자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벼 종자 생산량이 2023년 2321t에서 2025년 3562t, 2026년 6365t으로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1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한다. 관계당 중심의 품종 개발에서 나아가 기온·병해·염해에 강한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단계에서 개발된 벼 품종들을 국가 자원화하기 위해,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해 국내 벼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 품종을 기탁했다.

농진청 기술협력국의 최광호 국장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사업성과는 아프리카의 숙원인 쌀 지급자족과 식량안보의 발판을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벼재배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돕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만공사, 온실가스 감축·무재해 ‘성과’

6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 항만 생태계 조성 앞장”



부산항만공사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산항만공사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냈다. 책자에는 지난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과 성과를 비롯해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이 보고서는 2021 GRI 지침과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6번째이다. 2014년 첫 보고서 이후 2021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저·무탄소 항만 기반 시설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연관

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반부패·청렴경영 강화 등 ESG 전 분야 활동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23.5% 감축 ▲4년 연속 중대재해 ‘0’ 달성 및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반부패·청렴 위반 사례 ‘0’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사의 ESG 경

영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항만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공사는 앞서 해당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참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호현(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기후부

기후부, 미국과 에너지·원자력 협력 강화

원자력협정 70주년 계기
AI 시대 전력 안보 해법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국 측과 에너지 안보 공조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호현 기후부 제2 차관은 지난 8~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 원자력 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첫날인 8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개최한 ‘한미 원자력협정 7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0년에 걸친 양국 원자력 협력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차세대 원자력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핵 비확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산업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틀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9일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각국 고위급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리더들이 참석한 애틀랜틱 카운슬 제10차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차관은 ‘전기화 시대의 전력 안보’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 계통의 회복력,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광물 공급망이 전력 안보를 좌우하는 새로운 길목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의 5대 전력 안보 전략도 소개했다. 국가전력망 선제 투자, 기가와트(GW)급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장기 계약·유연성 시장 도입, 전력 거버넌스 개편, 핵심 광물·전력 설비 공급망 국제 연대 등이다.

이어 10일에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차관과 알렉스 피츠 시먼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양국이 직면한 에너지 안보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행사는 2024년 4월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정례화에 합의한 민간 협력 창구다. 올해 포럼에서는 에너지 금융·투자 지원, 전력 그리드·ESS 강화 등을 주제로 미래 협력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은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산자원공단, 불법어업 대응 강화 논의

‘PSMA 10주년 포럼’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한민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PSMA란 불법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 및 불법 어획물의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참석자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는 FAO를 비롯해 협정당사국과 국제기구, 주한 외교관 등 120여 명의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PSMA 당사국 역량 강화’와 ‘글로벌 정보교환 시스템(GIES) 활용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PSMA 이행 역량 강화 ▲법·제도 정비 및 검사관 교육 확대 ▲GIES 기반 정보교환 활성화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PSMA 이행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이행역량 강화와



한민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 전문가 포럼.

국가 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PSMA 발효 10주년은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국제 수산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HOOKKA HOOKKA STUDIO®

(DESK)

PAPER BOX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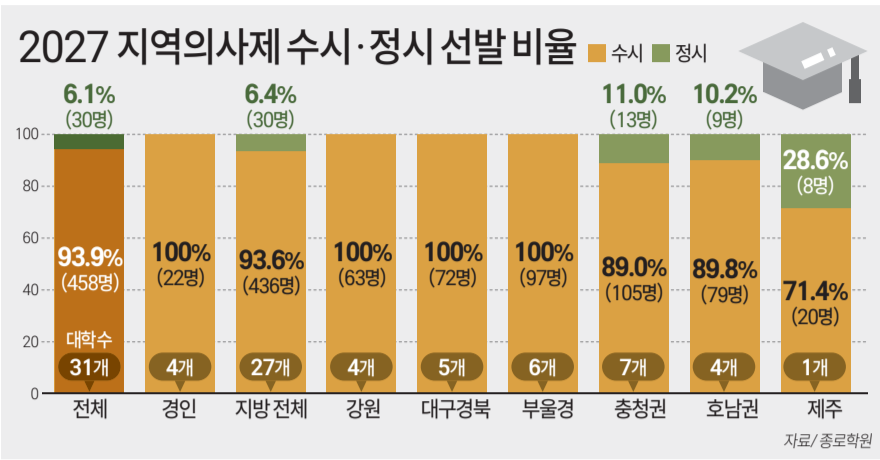
첫 지역의사제 선발, 수시 모집이 94%... 수능 최저 필수

31개 의대 488명 중 458명 수시 선발 수능최저 적용하지 않는 인원 11명뿐 내신 관리만으로 합격 장담 어려워

2027학년도 첫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성균관대·인하대 등 일부 전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인원 대부분이 수시로 선발되는 가운데, 수시 모집 인원의 98%가량이 수능 최저를 적용해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1개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인원은 총 488명이다. 이 가운데 458명(93.9%)이 수시에서 선발된다. 정시 선발 인원은 30명으로 전체의 6.1%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경인권 4개 대학 22명, 강원권 4개 대학 63명, 대구·경북권 5개 대학 72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97명이 모두



수시에서 선발된다. 충청권은 7개 대학 118명 중 105명(89.0%), 호남권은 4개 대학 88명 중 79명(89.8%), 제주권은 1개 대학 28명 중 20명(71.4%)을 수시로 뽑는다.

지역의사제 선발 31개 대학 가운데 28개 대학은 수시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은 충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이다. 충북대는 지역의사제 모집인원 30명 중 13명, 전남대는 31명 중 9명, 제주대는 28명 중

8명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수시 선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비율이 매우 높다. 전국 31개 의대의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인원 458명 가운데 447명(97.6%)이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11명(2.4%)에 불과하다. 강원권 4개 대학 63명, 대구·경북권 5개 대학 72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97명, 호남권 4개 대학 79명, 충청권 7개 대

학 105명은 수시모집 전원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제주대는 수시 선발 20명 중 18명(90.0%)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경인권은 4개 대학 수시 선발 22명 중 13명(59.1%)이 수능 최저 적용 대상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성균관대 3명, 인하대 6명, 제주대 2명 등 3개 대학 11명뿐이다. 제주대의 경우 수시 선발 20명 가운데 18명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2명만 미적용 대상이다.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을 보면 가천대는 3개 영역 각 1등급을 요구한다. 아주대는 4개 영역 등급합 6, 부산대·동국대(WISE)는 3개 영역 등급합 4를 적용한다. 연세대(미래)·경북대·영남대·울산대·한림대·원광대·순천향대 등은 3개 영역 등급합 5를 요구한다. 건국대(글로벌)·제주대·충남대·충북대·전남대·전북대 등은 3개 영역 등급합 6을 기준으로 하며, 단국대(천안)는 전형에 따라 3개 영역 등급합 5 또는 6을 적용한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첫 선발에서 학

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함께 갖춘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의사제 수시 합격자가 자연계 최상위권 일반학과 지원층과 겹칠 경우 일부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상위권 N수생 규모가 늘어날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 확대됐다가 2026학년도 줄었고, 2027학년도에 다시 확대되는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첫해부터 수시 선발 비중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 내신 관리만으로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험생들은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과 최근 의대 모집정원 변화, N수생 유입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lhj@metroseoul.co.kr metro

박태원 중앙대 이사, 공학관 기금 3억 전달

“강연 통해 모은 정성, 인재 육성 보탬” 반도체 클린룸 등 융합 연구공간 조성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박태원 이사가 중앙대 미래 AX 공학관 건립을 위해 발전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는 10일 서울 캠퍼스 201관(본관)에서 미래 AX 공학관 건립을 위한 박태원 이사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이사를 비롯해 이현순 이사장, 고석범 상임이사, 박세현 총장, 고중혁 연구부총장, 전향숙 다빈치캠퍼스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한 3억원은 '미래 AX 공학관'의 건립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 AX 공학관은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5만6740㎡,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캠퍼스 내 단일 건물 기준 최대 규모의 교육·연구 시설로,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 등을 갖춘 첨단 융합 연구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학



(왼쪽부터) 전향숙 다빈치캠퍼스부총장, 고중혁 연구부총장, 고석범 상임이사, 박태원 이사, 이현순 이사장, 박세현 총장, 나창훈 대외협력팀장,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 /중앙대

은 이를 통해 학문 분야 간 경계를 낮추고, 사람과 학문,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는 "이번에 전달하는 기금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에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정성이 담긴 돈"이라며 "미래 인재를 위한 대학의 연구와 인재 육성에 값지고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현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요구가

큰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박태원 이사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키워내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두산그룹 4세 경영인으로, K EDGE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컴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를 맡고 있다.

경험격차 해소... 서울린 '동행멘토단' 출범

대학생·중장년 멘토 109명 참여 22일부터 회원 신청 접수

서울린이 교과 학습 중심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경험까지 넓힌다. 가정 형편에 따라 벌어지는 청소년의 경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과 중장년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관심사와 진로 탐색을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부터 서울린 초·중·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울린 동행멘토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동행멘토단은 기존 교과 학습 중심 멘토링에서 나아가 음악·미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가 청소년의 관심사와 진로 탐색을 돕는 경험 중심 멘토링이다.

동행멘토단은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멘토 82명과 중장년 멘토 27명이 참여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멘티가 선택한 분야와 희망 지역, 멘토 109명의 전공과 활동 지역 데이터를 연계해 1대1 맞춤

형 매칭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을 우선 반영해 매칭을 진행할 계획이다.

멘토링 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기타 활동 등 총 10개 분야다. 음악 분야에서는 피아노·바이올린·기타 등 악기 연주, 미술 분야에서는 수채화·드로잉·웹툰 등을 다룬다. 댄스, 사진·미디어아트·영상편집, 서사창작과 글쓰기 등도 마련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수영·볼링, 필라테스·요가 등이, 기타 분야에서는 바둑·체스, AI 활용, 제2외국어 등이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서울린 초·중·고 회원은 22일부터 서울린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자의 활동 분야와 희망 지역 등 조건이 맞는 멘토·멘티부터 순차적으로 매칭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부천 대장 등 해제취락 정비 슛통

도내 30개 지역 약 2만호 주택 공급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역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마을이 해제취락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저층 건축만 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아파트 건립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만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간 노후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취락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설했을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롭게 허용돼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제한됐던 규정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양시 “시청 사칭 납품사기 주의하세요”

위조 공문서·명함 전송하기도

고양시가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와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사칭범은 고양시청 직원을 가장해 관내 업체에 전화로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했으며,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칭범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납품을 서두르도록 압박했으며, 위조 문서에는 시청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납품 요청을 받은 업체가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관련 공문서와 명함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납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식 행정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면세업계, 체질 개선 끝 흑자 전환... 고통율이 '새 변수'

다이쿱 의존 줄이며 수익성 개선
롯데면세점, 1분기 영업이익 323억
신라면세점, 7개 분기 만에 흑자
신세계·현대면세점도 흑자 행렬

고환율에 수입 브랜드 매입 부담
환율 보상·K브랜드 강화로 대응



인천공항에 위치한 면세점 모습.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면세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적자를 끊어내고 수익성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초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어렵게 되찾은 실적 개선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22.40원에 개장했다. 지난 6일에는 장중 1560원선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과 환전소에서 적용되는 실제 달러 매입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어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는 환율 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으로 꼽힌다. 백화점처럼 판매 공간을 임대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 상품은 달러 기준으로 거래돼 환율이 오를수록 매입 부담이 커진다.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도 약화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운 시점이다. 주요 면세점들은 최근까지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보따리상(다이쿱)에 의존하던 저마진 영업을 축소하고 고객수수를 줄이는 한편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정리하는 등 내실 경영에 집중한 결과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면세점 4사

는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영업이익 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신라면세점은 12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며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면세점도 각각 106억원, 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다만 해당 실적은 최근의 1500원대 환율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성적표라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세업계는 환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1350원 수준이던 기준환율을 올해 3월 1450원까지 올렸고, 환율 보상 프로모션도 확대하고 있다. 신라·롯데·신세계면세점 등은 구매 금액에 따라 적립금이나페이백을 제공하는 행사를 운영하며 소비자 이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K뷰티와 K패션 브랜드를 강화해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수요를 끌어들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

산 브랜드 상품의 원가 구조는 그대로인데 달러 표시 가격을 낮추거나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면 결국 면세점의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율 변동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가격 표시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처럼 달러 중심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보다 원화 표시 또는 원화·달러 병행 표기 방식을 도입해 가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하이난 등 주요 면세시장 역시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할수록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해외 현지 매장이나 온라인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상품 경쟁력과 쇼핑 경험 차별화를 통해 개별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신세계百 본점, 外人 매출 늘며 상권활력 견인

외국인 카드 이용액 98% 증가
명동·광화문 상권 17% 웃돌아
명품 매출 90% 늘며 효과 확인
K-콘텐츠·통역 서비스로 유입 ↑



신세계백화점 본점 풍경.

/신세계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리뉴얼 이후 외국인 고객 유입이 크게 늘며 명동·광화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외국인 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중구 명동·광화문 상권의 외국인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1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장세다.

신세계백화점 자체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19년 1분기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476만명을 넘어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러한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본점 리뉴얼 효과가 외국인 고객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1분기까지 본점

리뉴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까르띠에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 매장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따라 본점 명품 카테고리 매출은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90% 증가했다.

체험형 콘텐츠도 외국인 고객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본점 앞 신세계스퀘어는 K-팝 콘텐츠와 시즌별 문화 행사를 운영하며 관광객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고객 편의 서비스도 강화했다. 택시리전 키오스크를 확대하고 AI 기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서울과 부산 주요 점포를 연계한 '신세계 씨티투어 쇼핑패스타'를 운영하며 공연, 전시, 할인 프로모션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BGF리테일, 사내 데이터 AI 검색 체계 구축

한컴과 AI 검색 플랫폼 구축
사내 문서·게시글 통합 활용

BGF리테일이 한글과컴퓨터(한컴)와 협력해 전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지식 검색 체계를 구축하고 AI 전환(AI)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이달 사내 그룹웨어에 AI 지식 검색 플랫폼 'ASK(AI Shared Knowledge)'를 도입한다.

ASK는 사내 게시글과 문서, 첨부파일 등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임직원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질문 의도를 분석해 여러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심층 검색 기능도 지원한다.

인사 규정 등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비정형 문서와

사내 게시글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연동 기술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적용해 조직도와 업무 분장 등 사내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BGF리테일은 2024년 한컴과 AI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ASK 도입 이후에도 검색 품질과 응답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오투기 타바스코, 글로벌 미식 버거 선배

노브랜드와 협업 버거 2종 출시
성수랩 팝업·SNS 이벤트 운영

오투기가 글로벌 핫소스 브랜드 타바스코와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 협업을 통해 글로벌 미식 콘셉트를 담은 신메뉴 2종을 선보이며 소비자 점점 확대에 나선다.

오투기는 타바스코 브랜드가 노브랜드 버거와 함께 '글로벌 미식 여행'을 주제로 한 협업 메뉴를 출시하고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멕시코 스타일의 '아보카도 타코 버거'와 미국식 바비큐 감성을 담은 '스모크 바비큐 버거' 등 2종이다. 두 제품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판매된다.

아보카도 타코 버거는 아보카도 슬라이

스와 갈릭사워 소스, 나초칩에 타바스코 파카딜로 소스를 더해 멕시코 정통 타코의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스모크 바비큐 버거는 불향을 입힌 패티와 폴드 포크, 코울슬로를 조합하고 타바스코 히커리 소스를 활용해 미국식 바비큐 플래터...의 맛을 버거 형태로 재해석했다.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6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총 30명에게 아보카도 타코 버거 세트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노브랜드 버거 성수랩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오투기 관계자는 "타바스코 브랜드와 노브랜드 버거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타바스코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우베 아이스크림' 선풍 이색 디저트 수요 공략

홈플러스가 보라색 참마유인 우베(Ube)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2종을 단독 출시하며 냉동 디저트 상품군 확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우베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 보라색 참마유로,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풍미, 독특한 색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되며 주목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선보이는 신제품은 '리얼 우베 아이스크림'과 '리얼 아몬드 우베 아이스크림' 2종이다. 리얼 우베 아이스크림은 우베 본연의 맛을 담았으며, 리얼 아몬드 우베 아이스크림은 아몬드를 더해 식감을 강화했다. 홈플러스는 냉동 디저트 시장 성장에 맞춰 차별화 상품 확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버드와이저, 깃발 퍼포먼스로 월드페 달군다

3년 연속 후원 브랜드 참여
스페셜 칵테일 2종 첫 공개

버드와이저(Budweiser)가 '2026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월드페)'에 3년 연속 후원 브랜드로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월드페는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로, 올해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 DJ와 프로듀서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버드와이저는 행사 기간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접수한 메시지를 담은 커스텀 깃발을 현장 관객에게 배포하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깃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버드와이저 스페셜 칵테일도 처음 선보인다. 레몬 풍미를 더한 '버드첼로'와 토마토 주스를 활용한 '버드 레드아이' 등 2종이다. '버드 레드아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월드페에 Bud가 빠질 순 없지

버드와이저가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3년 연속 후원 브랜드로 참여한다.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음용 레시피를 적용했다.

박상영 오비맥주 하이엔드 브랜드 마케팅 상무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버드와이저의 브랜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라며 "관객들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버드와이저는 글로벌 캠페인 '이 순간 버드가 빠질 순 없지(This Calls For A Bud)'를 전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락인효과’ 노린다

美·英에 ‘부스터 프로 X2’ 진출
에너지 전달력·화장품 흡수율 ↑
신기능 3가지 추가… 총 7가지 모드
메디큐브 스킨케어 협업효과 기대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에이피알

에이피알이 가파른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성장 동력을 재정비한다. 화장품 사업 매출 확대와 함께 주춤했던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회복하기 위한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를 글로벌 핵심 시장에 전면 배치한다.

1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주요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 미국과 영국의 틱톡샵, 아마존 등에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X2’가 입점한다.

이 제품은 기존 ‘부스터 프로’ 출시 후 약 2년 반 만에 선보이는 세대 교체 모델이다. 에너지 전달력과 화장품 흡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기능 4가지에 신기능 3가지를 추가해 총 7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특히 기기 표면을 두 개 영역

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모드별 강도 역시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려 피부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자사 뷰티 디바이스 판매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구상이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메디큐브 스킨케어와 차세대 디바이스를 묶어,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연쇄 구매하게 만드는 ‘글로벌 락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 틱톡샵의 ‘메디큐브 US 스토어’의 경우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메디큐브 글로벌 계정의 팔로워 수는 139만 명에 달해 마케팅 기반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지난해 매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K뷰티 사업으로 성과를 내 분기 매출은 6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1분기에는 5934억원의 매출과 152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3%, 174% 급증했다. 이 중 화장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76%까지 늘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이와 함께 전체 매출 내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909억원) ▲2분기 28%(900억원) ▲3분

기 27%(1031억원) ▲4분기 22%(1229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22%(1327억원)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 규모 자체는 10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성장했으나 화장품 부문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인 존재감은 약화된 모습이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34% ▲2022년 30%에서 ▲2023년 41% ▲2024년 43.3%까지 치솟아 에이피알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K뷰티 영역을 ‘뷰티 테크’로 확장해 독보적인 기업 가치를 쌓은 것도 이 시기다. 이후 2025년 뷰티 디바이스 매출 비중은 27%로 화장품이 뷰티 디바이스를 앞지르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에이피알은 뷰티 테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다져왔고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뿐 아니라 홈 뷰티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영국 주요 플랫폼 출시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이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를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C녹십자 미래 팬데믹 대응 위한 mRNA 백신전략 공개

자제적인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융합한 ‘백신 주권’ 확보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자적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10일 ‘서울 팬데믹 X서밋 2026’에 참여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사의 mRNA 백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국제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팬데믹을 주제로 다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협력과 신속한 백신 개발 및 공급을 논의했다.

GC녹십자는 자체 mRNA-LNP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GC녹십자는 2019년부터 AI 답러닝 기술을 활용한 mRNA-LNP 플랫폼을 연구해 왔다.

특히 ‘코돈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단백질 발현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mRNA 서열을 설계하는 데 쓰인다. 인체 세포가 유전 정보를 읽고 빠르게 읽어 내도록 유도에 적은 양으로도 면역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또 mRNA 의약품의 생체 내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AI 기반의 지질나노입자(LNP) 구조 및 조성 최적화 기술도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은 비임상 연구에서 글로벌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첫 시험자 투여를 완료했고 오는 하반기 임상2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LG화학, ‘유트로핀’ 제품 안정성·효능 입증… 신뢰도 ↑

(성장호르몬 브랜드)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LGS 심포지엄’
저신장증 환자 대상 장기 관찰 결과
신제품 ‘유트로핀에코펜48’ 소개



LG화학 소진언 연구개발부장이 ‘제21회 LGS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

LG화학이 성장호르몬 브랜드 ‘유트로핀’ 제품군의 안전성, 효능 등을 입증한 장기 관찰 데이터를 공유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LG화학은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제21회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저신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트로핀 치료 장기 관찰의 중간 분석 결과와 신제품 ‘유트로핀에코펜48’ 경쟁력을 공유했다.

LG화학은 2012년부터 2035년까지 1만여 명 한국 소아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유트로핀의 장기 투약 데이터 확보를 위해 ‘LGS’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등록 환아 수는 8000여 명을 기록

했다.

LG화학은 국내 최장 기간, 최대 모집 규모의 실제 임상 근거 데이터를 확보해 저신장증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이영아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자혜 교수가 각각 ▲연구 13년간의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분석 결과 ▲

성장호르몬 결핍증, 특발성 저신장증 치료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LGS 안전성 데이터 중간 분석 결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0.2%로 낮게 관찰됐고 전반적으로 여러 안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됐음을 설명했다.

투약 4년간의 신장 표준편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저신장증 적응증에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 경향이 관찰됐다.

김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특발성 저신장증에 대해 7년간 성장호르몬 치료를 장기 노출한 결과를 분석했다. 갑상선 기능, 혈당 등 내분비 및 대사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국내 환자들의 장기 성장 반응은 해외 주요 장기 관찰연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정하 기자



지난 5월 27일~6월 1일 서울 성수 연무장길에서 ‘아테시’ 모델들이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풍선을 들고 홍보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서울 성수 ‘아테시’ 팝업

한미사이언스가 K뷰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5월 27일~6월 1일 서울 성수에서 테마 화장품 브랜드 ‘아테시’ 팝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아테시의 브랜드 철학과 제품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성수 길거리에 펼친 캠페인 풍선부터 퍼포먼스까지 오감으로 체험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부에서는 브랜드 첫 제품인 ‘블랙 펄 PDRN 네오 세럼’을 집중 소개하며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했다. 이 제품은 한미사이언스의 독자 원료를 적용한 고농축 항노화 제품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꺼진 볼과 눈가의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인부터 방한 외국인까지 약 18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하 기자

“간편한 젤 제형으로 퇴행성 관절염 완화” 조아제약 ‘달샷 에너지젤’, 도핑 안전성 인증

‘콘드로파워1200 경구용젤’ 선봬



광동제약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콘드로파워 1200경구용젤’ (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콘드로파워1200경구용젤은 사람 연골과 유사한 구조의 소 연골 유래 성분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이하 콘드로이틴)’을 국내 최대 1회 함량인 1200mg 함유했다. 경증 및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천연 감미제인 자일리톨을 첨가해 부드러운 단맛을 구현함으로써 복용 순응도를 높였다.

또한 흡수가 빠른 경구용 젤 타입 제형으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콘드로이

틴 제제 관련 SCIE급 논문에 따르면, 1일 1회 경구용 젤(1200mg)은 1일 3회 캡슐(각 400mg) 대비 복용 편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통증 감소 효과도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젤 타입 제형은 투여 14일차부터 증상이 24% 감소했으며, 91일차부터 증상이 50% 감소하고 완화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드로파워1200경구용젤은 1일 1포씩 복용하면 되며, 10포·30포·60포 단위로 구성돼 섭취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퀵리스트’ 등재… 객관적 검증

조아제약은 ‘달샷 에너지젤’이 도핑 안전성 인증 프로그램 ‘퀵리스트’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퀵리스트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 약물 포함 여부를 분석해 도핑 안전성을 검증한다. 독일 퀵리스트 육대학교 예방도핑연구센터가 성분을 검증하고 독일 올림픽 훈련센터에서도 활용한다.

달샷 에너지젤은 하이엔드 스포츠보충제로, 이번 등재를 통해 동화작용 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 각성제 등 금지 약물 성분에 대한 불검출을 확인받았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는 조아제약의 연구·기술력과 국내 마스터즈 마라톤 최다

우승 기록(통산 137회)을 보유한 러닝 전문가 정석근 감독의 실전 노하우가 집약됐다. 운동 초반부터 후반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페이스 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베타인 2000mg과 글루타민 2000mg을 각각 고품량으로 배합하고 벌꿀·로열젤리·화분 등 자연 유래 원료를 더했다. 물엿, 액상과당, 설탕, 카페인을 첨가하지 않고 말토덱스트린과 유기농 아가베시럽 등을 처방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퀵리스트 등재를 통해 도핑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운동선수 및 러너들이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제품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2026년 6월 17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주제 K푸드, 세계인의 먹거리: 글로벌 시장의 확장 and 현지화 전략
- 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등록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문의 2026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강연	14:10 ~ 14:40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14:40 ~ 15:10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공진흥과 사무관 : 2026 수산식품 수출전략
	15:10 ~ 15:40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팀장 :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15:40 ~ 16:10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
	16:10 ~ 16:40	안병익 식신 대표 : 식신 AI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찾는 K푸드
16:40 ~ 17:00	연윤열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 AI와 푸드테크가 만드는 K-푸드 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호석화그룹, 철새 서식지 복원 팔 걷어... 2.6억 투입

여수 사업장 인근 습지 조성사업 추진
백종훈 대표 "ESG경영 깊이 더 할 것"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전남 여수 지역 철새 서식지 복원에 나선다. 여수 사업장 인근 농경지를 겨울철 습지로 전환해 멸종위기종 철새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저감 효과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켄, 금호티앤엘 등 5개 그룹사가 공동으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들은 팅스카본과 협력해 여수 가사리 생태공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습지(무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여수 사업장 인근 약 3000평 규모 농경지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 철새 서식지 전경.

/금호석유화학그룹

그룹은 1차년도 약 1200평을 시작으로 2차년도 2400평, 3차년도 최대 3400평까지 서식지 조성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 사업장 인근은 순천만 습지와 가까워 겨울철 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월동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지역 개발로 농지 면적이 줄면서 철새가 머물 수 있는 서식 환경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겨울철 비농번기 농지에 일정 수심의 물을 유지하는 '무논'을 조성해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무논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생태 복원과 기후 위기 대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조성된 서식지에는 무인 센서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해 철새 개체 수와 서식

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그룹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식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 농가가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점도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지역 농민들은 겨울철 주 1회 범씨와 고무마 등 먹이를 공급해 철새의 먹이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3월에는 금호석유화학 임직원들이 현장 활동에 참여했으며 향후 정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임직원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여수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의 깊이를 더해가겠다"고 말했다.

/원문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인비즈協, 韓·中 기업 협력방안 모색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협회 사무실에서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진 회장(왼쪽 첫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롯데칠성음료, 폐기물 전환율 100% 달성

롯데칠성음료가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를 통해 ESG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11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총주2공장은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받아 폐기물 전환율 100%를 달성했다.

/롯데칠성음료

NHN, 양철웅 최고 기술책임자 선임

AI 활용 확대·중장기 기술 전략 강화

NHN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철웅 기술본부장(사진)을 신임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철웅 CTO는 KAIST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인터넷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기술 전문가다. 2022년 NHN클라우드 합류 후 보안개발팀 연구소장을 맡아 보안 기술 연구개발과 플랫폼 고도화를 이끌어왔다.

양 CTO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개발 혁신과 그룹 차원의 기술 협업을 주도하며 AI 전환(AX)을 이끈다. 조직 생산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로드맵



과 연구개발(R&D) 방향성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지난 10일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AI 시대 기술 조직의 핵심 키워드로 '속도와 방향'을 제시하며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NHN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우진 대표를 중심으로 양철웅 CTO, 안현식 CFO, 황선영 CLO, 이승찬 CHRO, 김상호 CGO로 이어지는 C레벨 리더십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 측은 이를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AI 활용 확대와 중장기 기술 전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하이트진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참이슬에 자살예방 상담 문구 부착

하이트진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유통되는 참이슬 제품 약 15만병에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렌' 안내 문구가 담긴 보조라벨을 부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 상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단위로 참이슬 109만병에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홍보 라벨을 적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는 올해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며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생명지킴이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생명지킴이추진본부로부터 '천명수호처'로 위촉됐으며,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농번기 일손돕기 나서

애경산업은 충남 청양에 위치한 약 3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청양공장 임직원들이 콩, 깨, 고추 파종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애경산업

CJ온스타일, ISO 37301 사후심사 통과

CJ온스타일이 국제표준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3년 연속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의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 윤리경영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CJ온스타일은 최초 인증 취득 이후 매

년 실시되는 사후심사를 통과하며 준법 경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사내 교육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내부심사원을 양성하고 자체 심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입사원과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준법교육 운영,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제도 활동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그룹, 제3회 '아이케어 업' 행사

100여명 초청... 힐링 프로그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아동보호 전문가와 종사자의 심리 회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아이케어 업 행사는 학대 피해아동 및 행위자를 대면

하는 아동보호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 전국 57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원·치료사 100명을 초청해 ▲연극 관람 및 명소 방명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식물테라피 제작 등 업무 피로도 경감·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학원총연합회, 17대 회장 조영환 당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제17대 회장에 조영환 후보(사진)가 선출됐다.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대의원총회에서 기호 1번 조영환 후보가 176표 중 97표를 얻어 제17대 회장에 당선됐다.

조 신임 회장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밝히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학원 관련 법적·제도적 구조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학원 설치 근거를 평생교육진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과 평생교육정책연구소 상설기구 설립, 전국 학원 연합회의무가입 제도 정착, 자율정화활동 강화 등이다.

조 신임 회장은 학원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진흥·육성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선언이 아니라 실제, 약속이 아니라 구조로 회원이 주인 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중기중앙회 환경·ESG위원회 첫 회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첫 환경·ESG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분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김혜주 퀀티파이디에스지 이사가 'ESG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을, 조기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장이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 이해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역시 경각심을 갖고 ESG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6월 12일 (금)
음력 : 4월 27일

수도권 날씨
16~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0 | 해질 / 19:54

연천 13/26, 동두천 14/27, 가평 13/28, 파주 14/27, 서울 16/28, 양평 14/28, 인천 17/26, 수원 16/28, 용인 16/28, 평택 14/28, 백령도 15/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장 이정현

부음 ▲권오길 별세, 권혁찬·혁중(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부친상, 윤종미, 김혜영(태성SNE 마케팅그룹장) 시부상, 권순모(한국투자증권) 조부상, 원자력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강숙자씨 별세, 김이규·김혜경·김정희씨 모친상, 한종희(KG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장)·이기호씨 장모상=10일, 울산 남구 울산영락원 201호, 발인 12일. 052-272-1111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사기꾼은 외로운 사람을 노린다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201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은 외로운 마음을 노리는 전형적인 사기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와 친밀해진 다음 그 믿음과 사랑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가해자는 보통 자신을 '파병 군인', '해외 거주 한국계 전문직' 등으로 그럴듯하게 소개하며 다가선다. 그리고 충분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됐다 싶으면 작전을 개시한다. "업무차 그리스에 나와 있는데 지갑과 비행기 표를 도둑맞았다", "갑작스런 사고로 목돈이 필요하다" 등 온갖 거짓말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한다. 이때 사랑에 빠져 있던 외로운 피해자는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돈을 보내 주기 일쑤다. 돈을 받아낸 순간 로맨스 스캠범은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배 급증했다. 피해액은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배나 증가했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프랑스에서는

50대 여성 앤(Ane)이 무려 1년 반 동안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와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일이 있었다. 사기꾼들은 그 여성에게 "브래드 피트가 신장암에 걸렸다"며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브래드 피트 입원 사진'까지 보냈다. 결국 그녀는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고, 그제서야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다. "너무 외로워서 기별 대상이 필요했는데 한순간 눈이 멀었다"고 털어놓은 그녀의 고백은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안겼다.

외로운 심리 상태일수록 사기범의 거짓 친밀감에 취약할 수 있다.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온라인 지인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설령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더라도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급박한 사정이라 해도 매신저로 돈부터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진정한 연인이나 친구라면 그런 식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할 리 없다. 또한 부모님 세대의 경우 외로움 때문에 수상한 연락에 더욱 쉽게 현혹될 수 있다. 가족 간에 암호 질문을 미리 정해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기보다 오프라인에서 취미 모임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과도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 지지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주변에 따뜻한 관심과 조인을 보내 주는 이들이 있다면 설령 수상한 유혹이 오더라도 피해자가 사기임을 깨닫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약점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빔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을 적절한 타깃으로 판단해 감정을 건드린다"고 분석한다.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라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알려 줄 보호망이 없다. 함께 걱정해 줄 가족도, 조언해 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상황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 취약점이 된다.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정서적 빈곤을 키웠고, 이를 파고드는 사기 수법이 장광하고 있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잠시 북아메리카 잔치의 시간



김연세의
(정책사회부)

100년을 바라보는 FIFA 월드컵 역사에 대해 브라질을 빼놓고 논할 순 없다. 영원한 우승 후보로 불려 왔다. 그러나 이 최고의 수석어는 2010년대를 거치며 무색해졌다. 2006 독일 대회부터 2022 카타르 대회까지 단 한 번도 결승전 무대를 밟지 못했다.

'우승국은 개최국이 속한 대륙에서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만을 가리키는데 예외가 있었다. 유럽(1958 스웨덴 대회)에서 브라질이, 아메리카(2014 브라질 대회)에서 독일이 각각 우승컵을 챙겼다. 브라질이 2026 북미 대회에서 그 전통을 되살릴지 관심거리다.

네이마르는 13년 전 컨페데레이션컵 결

승에서 스페인(2010 월드컵 우승국) 상대 3-0 완승을 이끌었다. 그가 삼바축구·카나리아 군단 재건의 서곡을 울렸으나 작파 먼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쪽은 필러와 음바페, 메시였다.

그에 앞서 스페인은 2010 남아공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0-1로 패했다. 그 전까지 스위스 상대로는 A매치에서 48년간 진 적이 없던 터. 맥팩이 뒀는지 스페인은 그해 정상 자리에서 올랐다. 그러나 이 타키타카 축구도 바로 다음 대회인 2014 브라질에서 종말을 고했다. 조별리그 초창부터 네덜란드에 대패한 것. 또 칠레한테까지 잡혀 밀릴 판 짜야 했다. 오렌지군단의 복수극은 완벽했다. 2010년 결승에서 스페인에 눌린 설움을 4년 뒤 골폭풍으로 달랬다. 선취골을 내주고도 내리 다섯 골이나 뽑아냈다. 당시 네덜란드는 파죽지세였고 4강까지 내달려 아르헨티나와 마주했다. 하지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고 판페르시-로번-스네이더의 화려했던 시절도 저물어 갔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우승컵은 4개국만이 나눠 가졌다.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다. 그 남미 2강·유럽 2강 구도를 갠 건 프랑스였다. 지단-앙리-트레제게의 삼각편대는 1998년 레볼루션 단을 역대 챔피언 반열에 올려 놨다. 음바페와 메시의 3번째 격돌 성사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는 2018 러시아 대회 16강전 때 아르헨티나에 4-3 신승을 거둔 바 있다. 둘은 4년 뒤 다시 만났고 메시가 설욕했다. 21세기 들어 2회 이상 우승한 나라는 아직 없다. 올해 대회에서 나올 공산은 꽤 크다. 브라질(2002년 1위), 스페인(2010), 독일(2014), 프랑스(2018), 아르헨티나(2022) 중에 가능할 것이라 개 대체적 관측이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도 거론된다.

/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 (음 4월 2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60년생**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72년생** 가족 화합에 노력하면 길하게 됩니다. **84년생**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49년생**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1년생**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73년생**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85년생**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 50년생** 활동 무대에 변동이 생기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62년생**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74년생** 못마땅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86년생**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할게 많습니다.
-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게 좋습니다.
-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 53년생** 잘 대처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65년생** 상대방에게 예의 있게 대하면 좋습니다. **77년생** 고생한 대가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때론 내 이익도 추구해야 합니다.
- 54년생** 주위에서 오해해도 깨끗하게 대처하세요. **66년생** 마음이 좋지 않아도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78년생** 약속은 지키는게 좋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5년생** 가족간에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67년생** 산 넘어 산이니 문제가 계속됩니다. **79년생**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91년생**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하는게 좋습니다.
- 56년생** 문치면 좋고 흠어지면 어렵습니다. **68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0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리더십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 57년생** 칭찬은 많이 하고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69년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습니다. **81년생** 긍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이익이 많습니다. **93년생** 인연이 좋은 하루입니다.
- 58년생** 일관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70년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82년생** 주변 사람이 잘 도와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94년생** 이동수가 있습니다.
- 59년생** 원하는 것을 얻지만 손실도 따릅니다. **71년생** 지위에 구애받지 말고 일관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마음을 좋게 가지면 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사찰 불사가 중요한 이유

사찰에서는 계절마다 달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의례가 열린다. 이런 종교적 행사와 의식을 통틀어 불사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일'이다. 불사라고 하면 법당을 짓거나 불상을 모시거나 행화를 그리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 일 외에도 천도제 같은 재를 올리거나 염불을 외우거나 연등을 다는 것도 모두 불사에 속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수행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불사라고 하는 것이다. 불사를 크게 나누어 보면 절의 공간을 만드는 일 그리고 각종 의례와 행사로 구분할 수 있다. 법당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일이 공간을 만드는 불사이고 천도제, 기도, 법회, 사십구재 등이 의례나 행사로서의 불사이다. 불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불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빌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

불사에 참여하는 계절에 시주하거나 의례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런 것이다. 불사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대중들이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탁해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고통에 빠진다. 그런 때 불사에 참여하면서 욕심을 털어내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는다. 털어내었다는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사는 게 답답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곳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5		7	1	2		9
			2		6	5	
		2	8		5	1	
							5
	2		5		9		4
4							
		7	4		6	8	
	3	8		5			
2	6	7	8			9	1

4	2					8	5	7
5			2					1
3		9				4		
			7	5	6		9	
			4		8			
	4		9	3	7			
		4				3		9
6						9		5
9	5	8					7	2

1	6	9	8	2	9	7	2	
9	2	7	2	9	6	8	8	1
2	1	8	9	8	7	2	6	9
8	2	6	2	9	1	9	8	7
8	7	2	6	1	9	8	2	9
9	9	8	7	6	2	1	2	8
2	8	1	9	7	8	2	9	6
2	9	9	8	2	8	6	1	2
6	8	2	1	2	9	7	9	8

2	2	1	8	7	9	8	9	6
9	7	2	6	8	1	2	8	9
6	8	8	2	1	9	7	9	2
8	9	9	2	6	1	9	2	2
8	2	9	8	2	7	9	6	1
7	6	2	9	9	2	8	1	8
9	1	7	9	2	8	6	2	8
1	8	6	7	9	2	2	8	9
2	9	8	1	6	8	9	2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닥터루젠 “리슬링의 무한 잠재력을 깨워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1

독일 그랑크뤼 리슬링이라고 하면 와인 애호가라고 해도 고개를 가웃거리다. 독일에도 그랑크뤼 같은 분류가 있구나 싶어서다.

있었다. 독일어로 그로세 라게(Grosse Lage·그랑 크뤼)다. 1868년 프로이센 포도밭 등급 지도에 그로세 라게가 표시됐음을 감안하면 프랑스 부르그뉴(1935년)보다도 먼저다.

누가 앞섰느냐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와인이 시작부터 테루아와 포도의 품질을 세세히 따졌다는 것이 포인트다.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Dr. Loosen)을 이끌고 있는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사진)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닥터 루젠은 오로지 가장 좋은 그랑크뤼 포도밭에만 집중하며, 각 테루아가 가진 고유한 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와인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닥터 루젠은 독일 모젤강 유역에서 200년의 역사를 이어나와 와이너리다. 에른스트는 가문의 6세이다. 닥터 루젠의 10개 주요 포도밭은 모두 그로세 라게다. 독일 와인법상 공인되진 않았지만 독일 최우수 와인 생산자 협회인 VDP에서 공식 인정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Dr. Loosen)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에른스트 루젠(Ernst Loosen)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리슬링의 다양성과 닥터 루젠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분류다.

포도품종은 단 하나 리슬링이다. 리슬링이 독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품종이기도 하지만 특히 와인 명산지 모젤은 리슬링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에른스트가 말하는 리슬링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다. 기후나 지역에 따라, 심지어 포도밭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는 “같은 화이트 품종이라도 샤도네이가 오코 숙성을 했는지 여부로 와인의 개성이 한정되는 반면 리슬링은 팔방미인”이라며 “섬세한 꽃 풍미에서 잘 익은 과실까지, 가벼운 와인에서 농축된 스타일까지, 드라이 와인에서 달달한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랑크뤼 포도밭에서 잘 자란 리슬링이

라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준다.

에른스트는 “독일의 리슬링은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순수한 표현력의 직관적인 와인”이라며 “인위적인 기술은 쓰지 않고 포도 스스로 배럴 안에서 특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밝혔다.

독일 리슬링은 오랜 시간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됐지만 이제 기후도, 트렌드도 아군으로 돌아섰다.

독일 와인 산지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다.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면 기후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있었던 얘기다. 특히 모젤은 리슬링을 재배할 수 있는 최북단 산지임에도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포도를 원하는 만큼 익힐 수 있게 됐다.

젊은 세대일수록 저알코올 주류를 선호하면서 와이너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있지만 닥터 루젠



독일 와이너리 닥터 루젠의 와인들.

/아영FBC

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닥터 루젠 와인은 도수가 보통 11.5도 안팎으로 높아봤자 최고 12.5도다.

반면 같은 리슬링이라도 프랑스의 알자스의 경우 도수가 14도 안팎에 달한다. 특히 모젤 스위트 리슬링의 경우 7.5도에 불과하다.

리슬링은 다양성 만큼 음식 페어링도 선택의 폭이 넓다.

그는 “산도가 높은 드라이 리슬링은 신선한 생굴의 미네랄과 정말 잘 어울리고, 좀 더 힘이 있는 그랑크뤼 드라이 리슬링이라면 익힌 생선요리나 봉골레 스파게티와 마셔보라”고 추천했다.

다음은 우리의 귀가 솔깃할 맵고 짠 음식과의 페어링 꿀팁이다.

에른스트는 “오코 뉴앙스는 매운 맛을 쓴 맛으로 바꿔놓고, 알코올은 도수가 높을수록 매운 맛을 가혹화시킨다”며 “맵고

짠 음식이라면 단맛이 한 스푼 들어가면 밸런스가 잘 맞는 것처럼 살짝 단맛이 도는 리슬링이 환상적으로 어울린다”고 말했다.

에른스트는 일흔 생일을 앞두고 있지만 리슬링의 잠재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끊임없이 구상 중이다. 독일 본토 와이너리 인수에 이어 미국과 호주, 부르그뉴에서도 와인을 만들고 있다.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묻자 계획은 없다면서도 “와이 낫(Why not)?”을 외친다.

그는 “3년 전에도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에 법인을 만들고, 부르그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였다”며 “그렇듯 좋은 품종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고 싶을 때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치지직, ‘FIFA 북중미 월드컵’ 생중계

크리에이터 연계 ‘같이보기’ 서비스 AI 활용 경기 콘텐츠 대폭 강화 방송 보면서 FC 온라인 미니게임도



네이버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한다. /네이버

네이버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한다.

치지직은 월드컵 전 경기 생중계와 함께 인기 스트리머 한동숙, 울프를 비롯해 숏포터브, 이스타TV, 채널십오야, 플레이브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 채널과 연계한 ‘같이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치지직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가운데 가장 먼저 같이보기 기능을 도입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48개국에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 104경기를 실시간 소통형 콘텐츠로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경기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경기 중에는 실시간 AI 슛폼 클립을 제공하고, 종료 직후에는 선수별·경기별 VOD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업로드한다. FIFA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 전 선발 라인업과 전술, 관련 포인트를 분석하고, 경기 후에는 선수 평점과 경기 분석, 하이라이트 등을 담은 AI 브리핑도 제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톡, 축구 국가대표팀 온라인 응원

‘카톡응원전’ 통해 커뮤니티 강화 오픈채팅에 전용 응원방 개설 퀴즈 이벤트서 유니폼 등 증정



카카오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카톡응원전 캠페인 진행 대표 이미지. /카카오

카카오톡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온라인 응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응원하는 참여형 캠페인 ‘카톡응원전’을 통해 스포츠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

11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응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참여형 캠페인 ‘카톡응원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축구 팬들을 위한 전용 응원방을 개설한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레전드방’과 ‘아이콘방’, 이미지 중심으로 가볍게 소통하는 ‘고독방’ 등 총 3개 채널을 운영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응원 환경을 제공한다.

응원방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축구 퀴즈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6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국가대표팀 선수 이미지로 프로필 꾸미거나 준비된 응원 문구를 함께 외치

카카오게임즈 ‘도깨비의세계’ IP로 전통문화상품 개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맞손’

카카오게임즈는 11일 자회사 슈퍼캐츠와 함께 신작 MMORPG ‘도깨비의세계’ IP를 활용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기업연계 전통문화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슈퍼캐츠는 ‘도깨비의세계’의 한국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전통 복식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내 코스튬과 실물 의상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는 전통문양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한복 브랜드 ‘오우리’도 참여한다.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며 게임 IP와 K-컬처를 연결하는 콘텐츠 확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전통문화가 지닌 상징성과 미학을 게임 콘텐츠에 녹여내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 ▲美 공습에 이란 호르무즈 봉쇄...긴장 재고조 /사진 뉴시스
- ▲트럼프, 백악관 UFC경기장 건설에 7개 부처와 6000만 달러 동원

- ▲빌 게이츠 “엡스타인 만난 건 판단 착오...불륜 사실 알고 압박”
- ▲오픈AI “중국, 챗GPT 악용해 美 AI 여론전 시도”

- ▲“유럽인 10%만 美 동맹으로 인식...트럼프 취임 이후 하락세”
- ▲“北 우라늄 농축 곧 75%까지 확대 가능성”-런던 ‘버티크’ 분석



먼세업계
흑자 전환
고환율 '변수'
니



Life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락인효과 전략
L2



모던함과 자연의 조화... 차별함으로 완성한 일상 속 풍경

아파트의 미학(美學)

포레나 인천학익

생활·교육 인프라 뛰어난 학익지구
절제된 조경으로 밀도 높은 공간 조성

중앙광장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 카페
수경시설 내 원형 화단으로 포인트
모던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주거환경

완만한 물결 곡선 활용한 특화 놀이터
단란한 가족 온기 표현한 예술작품도



포레나 인천학익 단지 내 중앙광장
'카페 브리즈'와 수경시설.

서울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버스로 15분
가량 이동해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
내리면 '포레나 인천학익' 아파트가 한 눈에
들어온다. 단지 주변으로는 인하대사대부고와
인천지방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교육시설과 법조타운이 자리한 인
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포레나 인천학익'
은 완성된 생활권 강점을 앞세운 단지다. 향
후 약 5000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할 학
익지구 중심부에 들어섰다. 학익동과 주안동
일대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천 신형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으
로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
됐다. 이 가운데 2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인

다.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한화
건설부진이 시공을 맡았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교통과 교육, 생활 인
프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입지다. 문화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미추홀대로를 이용하면 송
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로도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가깝고
오는 2028년 학익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연화초와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
고를 비롯해 인하대학교까지 반경 약 1.2km
안에 있다. 홈플러스와 CGV 인천학익, 인하
대병원, 인천문화경기장 등도 가깝다.

단지에는 중앙광장 '카페브리즈'와 어린이
놀이터 '메리키즈그라운드'가 조성됐다. 스쿨
버스 정류장과 시니어클럽하우스 등 생활밀

착형 시설도 갖췄다. 커뮤니티시설인 '클럽
포레나'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
X룸 등 운동시설과 독서실, 문화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의 주거 브랜드 '포레나'는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브랜드 입지
를 넓혀가고 있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2024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 주거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거 서비스와 커뮤니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 단지의 핵심 공간은 중앙광장 '카페 브
리즈(Cafe Breeze)'다. 사방을 통창으로 마감
해 유리 너머로 수목과 산책로, 수경시설 풍
경이 펼쳐진다. 마치 정원 한가운데 놓인 카
페에 들어선 듯 하다.

검은색 메탈 소재의 벤치와 테이블은 조형
미를 더하면서도 절제된 인상을 풍긴다. 흰색
건축물과 검은색 가구의 대비가 공간의 세련
미를 부각시킨다. 티하우스 앞에는 야외 테라
스 공간도 마련됐다.

카페 브리즈를 둘러싼 중앙광장은 넓은 수
경시설과 함께 조성됐다. 짙은 색의 자갈은
주변 녹지와 밝은 색의 티하우스를 더 돋보이
게 한다. 수경시설 한가운데에 원형 화단을
조성했다. 광장 주변 역시 다양한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포레나 인
천학익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공간 자체를 탐험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 중심에 대
규모로 조성된 '더 그루브라임(The Groover
hyme)'은 완만한 물결형 곡선을 활용한 지형
특화 놀이터다. 평평한 바다 대신 오르막과
내리막, 작은 언덕이 반복돼 아이들이 역동적
으로 움직일 수 있다.

붉은색과 베이지색 바닥이 만들어내는 패
턴은 사막 위에 바람이 남긴 물결 자국을 떠
올리게 한다. 곳곳에 조성된 둥근 언덕은 모

래성을 쌓아 올린 듯한 모습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자신만의 놀이 방
식을 만들어낸다.

입주민 일상에 이야기를 더하는 예술 작품
도 눈에 띈다. 최원순 작가의 '행복을 꿈꾸는
가족'은 네 가족이 한 몸으로 연결된 모습을
형상화했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며 부모와 아이들 형상
이 단란한 가족의 온기를 전한다. 작가는 가
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의 바람
을 담았다. 자연형 정원과 어우러지며 단지
공간에 따뜻한 감성을 더한다.

산책로를 따라 걸다 보면 포레나 프리스쿨
과 북하우스, 시니어클럽하우스, 클럽포레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날 수 있다. 건
물과 정원, 산책로의 경계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클럽 포레나' 주변에는 가이즈카
향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가지와 잎이 촘촘하
게 자라는 형태로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하
며 조경에 입체감을 더한다. 공해와 환경 변
화에도 강해 도심 아파트 조경에서 선호되는
수종 가운데 하나다.

단지 곳곳에는 작은 공간에도 디자인 요
소를 녹여냈다. 자전거 보관소 벽면에는 자전거
를 타는 주민과 반려견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래픽이 보인다. 일상 속 여유와 활력을 상
징적으로 담아냈다. 짙은 청록색 벽면과 노란
색 포인트 컬러가 어우러져 단조로운 지하 출
입구 공간에 생동감을 더한다.

포레나 인천학익의 조경은 화려한 랜드마
크를 세우기보다 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설
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광장의 티하우
스와 수경시설,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 지
형을 활용한 놀이터까지 각각의 공간은 독립
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정원처럼 유기
적으로 연결된다. 공간을 넓게 펼치기보다 밀
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과 휴
식,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생활
풍경을 구현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특화 놀이터와
자연이 어우러진
단지 전경.



최원순 작가의
'행복을 꿈꾸는 가족'
/성채리 수습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메시·호날두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 '레
전드' 분류
▲실력도 인성도 특급...LG의 선두 원동력, '오주
장' 오스틴 /사진 뉴스시스

▲김대원·김형근·이기혁·티아고, K리그 5월 선
수상 경쟁
▲황룡사 9층 목탑 속 비밀...경주박물관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 특별전

▲“국립극단 무대 설 배우 찾아요”...시즌단원 공
개 모집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국가유산 주제 수업안
공모